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목 차

인사말

- 06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상의 학습'에 대한 신사유람단

들어가는 글

- 07 평생학습이 희망이다

시민강사의 시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 16 1 평생학습 계에 부는 시민주도 바람 **누구나학교**
25 2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위즈돔Wisdome**
31 3 사람책이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숨쉬는도서관**
36 4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언신투어즈Unseen Tours**

협동의 시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 44 1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습 공동체 **지혜로운학교**
50 2 사회적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 **더체인지The Change**
56 3 일거다득의 학습 공간 **오픈소스Open Source**형 지식정보 사이트
62 4 물물교환으로 운영되는 학교 **트레이드스쿨Trade School**

마을의 시대, 삶의 현장에서 배운다

- 70 1 건물도 없고 책도 없는 네트워크형 마을도서관 **똑똑도서관**
76 2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시부야대학**
82 3 청년들의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자립 프로젝트 **OO은대학**
86 4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 가꾸기를 통한 일상의 학습 **삼각산재미난마을**

대중지성의 시대, 대학의 경계를 허문다

- 94 1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대학 **DIY 대학 운동**
99 2 온라인 기반 대안 대학 **엠오오시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104 3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질문하기 **대안인문학공동체 운동**
111 4 일상을 공부로 만드는 메커니즘 **포티스리싱즈43 Things**

교육의 경계를 허문다

펴낸 곳 수원시평생학습관
펴낸 날 2013년 4월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
누구나학교 nuguna.suwonedu.org
아카이브 wa.suwonedu.org
페이스북/트위터 @suwonedu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전화 031-248-9700
팩스 031-248-9902

♻️ 내지 : 미색모조 100g, Soy ink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상의 학습’에 대한 신사유람단

한반도를 둘러싼 동서양 강대국의 긴장이 고조되던 고종 18년. 1881년 4월부터 7월까지 5명으로 구성된 12조 총 60명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름하여 신사유람단입니다. 중국 일변도의 관례를 벗어난, 일본에 대한 일종의 벤치마킹입 니다.

누군가 먼저 간 길을 뒤따르는 것은 개척자로서의 성취감은 없지만 앞선 이의 성과와 과를 온전히 파악하여 효율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 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모형은 이제 우리의 핵심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방 식도 다르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와 연구에 투입할 요소 의 부족으로 그 깊이는 부족할 수 있지만 현재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상 학습의 모습 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집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역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보람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이 희망이다

평생학습 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평생학습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태동적 개념 자체가 이미 혁명이었고 미래적인 존재였다. 누군가 인용해 유명해진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라는 말처럼 평생학습이 불러내 온 교육의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가 꿈꾸는 평생학습의 미 래는 그 일부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 도래해 있는 미래의 장면들을 하나씩 모아보기로 했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 처 잘 알지 못했던 평생학습의 혁신적 의미를 재조명해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의 의미라 할 수 있는 네 가지 현상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각 현상 별 내용과 해당 사례들을 아래에 간단히 소개한다.

- 시민강사의 시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 협동의 시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 마을의 시대, 삶의 현장에서 배운다
- 대중지성의 시대, 대학의 경계를 허문다



시민강사의 시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변화의 속도도 너무나 빠르고 변화의 원인도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그 인과관계의 설명이 불가능한 시대. 복잡계의 특성을 보이는 이러한 현 시대에, 소위 '과학적'이라는 학문적 이론과 지식에 사람들의 회의와 불만이 커져만 간다. 불변의 진리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히 특정 상황 하에서의 구체적 경험이나 현실에서 그 유용성이 증명된 실질적 노하우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듯 이론적 지식보다는 경험적 지식, 즉 경험을 통해 터득된 실질적 노하우나 삶의 지혜를 중시하는 경향성은 교육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문적 논리적 지식으로 탄탄히 무장한 전문강사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체득한 일상의 경험과 지혜가 그냥 온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새롭게 강사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다. 자기만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자격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는 시민강사의 시대가 문을 연 것이다. 이러한 시민강사들이 이끄는 수업에서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종속적 권위적 일방적이거나 보다는 평등하고 참여적이며 호혜적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분적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협동하며 배움을 만들어간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확산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중요시한다. '시민강사의 시대'에 해당하는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한다.

- 평생학습 계에 부는 시민주도 바람 <누구나학교>**
 제도권 평생학습 계에 나타나고 있는 주도적 시민 참여 움직임 중 하나다. 시민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한 좀 더 살기 좋은 공동체 가꾸기를 지향한다.
-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위즈돔Wisdome>**
 요즘 증가 추세에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소외계층일수록 제한적인 경험과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경험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사람책이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숨쉬는도서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사람, 즉 '사람책'을 빌려 주는 도서관이다. 평범한 이웃들이 그려가는 자기의 독특한 인생 이야기를 강의가 아닌 대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언신투어즈Unseen Tours>**
 노숙인이 인솔하는 런던 도보 탐방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상징적 구호가 아님을 현실에서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협동의 시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절대 지식 및 가치가 중시되던 근대사회에는 지식 및 기술은 수직적 단선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것이고 타자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것으로 혼자서도 터득이 가능하고 소유가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지식 및 정보 생성의 방식이 수평적 네트워크적으로 변화되면서 개인의 관계적 주체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타인 및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만 개인의 존재 의미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은 나누고 공유할 때 더욱 커지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작은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생성적으로 계속 변화 발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을 만들어간다. 더 이상 소유는 의미가 없다. '협동의 시대'에 해당하는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한다.

-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습 공동체 <지혜로운학교>**
 '배움과 나눔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서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회원 중심 학습 공동체다. 영국 <U3A>를 모델로 퇴직한 시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 사회적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 <더체인지The Change>**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 결과가 아닌 '과정', 소유가 아닌 '공유', 주장이 아



닌 '대화', 조직이 아닌 '플랫폼'을 중시한다.

- **일거다득의 학습 공간 <오픈소스Open Source형 지식정보 사이트>**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함께 고쳐 나가는 오픈소스형 지식정보 사이트를 소개한다. 지식 생산에 참여하는 개인들과 생산된 정보를 공유하는 다수가 모두 함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물물교환으로 운영되는 학교 <트레이드스쿨Trade School>**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다. 수업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학생들이 강사에게 돈 대신 선물(트롬본으로 연주하는 세레나데, 치즈 한 덩어리, 양말 한 켤레, 여행지 추천 등)을 준다. 화폐가 아닌 선물에 기반한 관계 맺기가 가져오는 힘을 믿는다.

마을의 시대, 삶의 현장에서 배운다

절대적 진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 상황적 우연적 경험이 중시되는 시대에 더 이상 교실이라는 형식적이고 고정된 공간에서 책 속의 지식을 선생님으로부터 전수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구체적 일상이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배움의 공간이다. 지속적 성찰 및 실천을 통해 유의미한 존재의 변화가 가능한 무형식적 생활 속 공간으로 학습의 장소가 확대된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는 합리적 이성만이 중시되지 않는다. 사람 간 관계, 정서적 유대, 감정의 표출이 가능하고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배움이 이루어진다. 단순한 지식이나 스킬의 축적보다는 성숙, 감정 및 경험의 교류를 중요시하게 되는 일상에서의 학습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또한 산업사회 하에서는 돈벌이를 위해 대규모 조직에 취직해 대부분의 시간을 나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벗어나 회사라는 인위적 공간에서 보내면서 삶의 터전과 일의 터전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식 및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로 소규모 또는 1인 기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비전에 따라 삶과 일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경험적 학습의 장으로 점차 그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마을의 시대'에 해당하는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한다.

- **건물도 없고 책도 없는 네트워크형 마을도서관 <뚝뚝도서관>**

각 가정마다 가득한 책들을 이웃과 서로 돌려보는 주민 간 책 나누기 네트워크이다. 삭막한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바꾸어 가는 작지만 소중한 솔루션이다.

-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시부야대학>**

일본 시부야 전체를 캠퍼스로 삼아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의도 한다. 강의를 매개로 시부야만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 **청년들의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자립 프로젝트 <OO은대학>**

청년들이 마을의 자원과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배움거리, 놀거리,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자립을 돕는 학습 프로그램이자 동시에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다.

-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 가꾸기를 통한 일상의 학습 <삼각산재미난마을>**

마을 주민들의 일상의 바람을 담아 다양한 공간과 모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이다. 일상과 연결된 구체적 행위를 통해 배워가는 현장경험적 학습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대중지성의 시대, 대학의 경계를 허문다

머리 역할을 하며 사회를 이끄는 소수의 엘리트층과 손발이 되어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다수의 대중들. 근대 이후 지식사회의 도래와 함께 더 이상 이러한 이분법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스스로 생각하고 비전을 만들며 실천해 나가는 주체적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대학 수준의 지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의 대학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비용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대학 접근을 원천적으로

로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점점 권력화 상품화되고 있는 대학 교육이 과연 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과 질문,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대학 밖에서 더 대학스러운 움직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소위 '고급지식'을 얻기 위해 또는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기 위해 대학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대학이 제공하는 일률적 커리큘럼에 나의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끼워 맞추어 필요도 없다. 대학은 더 이상 최고 지성의 장도 최고 지식의 유일한 보고도 아니다. '대중지성의 시대'에 해당하는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한다.

-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대학 <DIY 대학 운동>**

대학 교육의 상품화 엘리트화 보수화 등에 반기를 들고 자기만의 커리큘럼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를 설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움직임을 소개한다.

- **온라인 기반 대안 대학 <엠오오시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는 열린 강의를 의미한다. 세계 일류 대학들의 참여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 움직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대학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질문하기 <대안인문학공동체 운동>**

대학의 권력화 및 상품화에 저항하며 약 10여 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대학 밖에서 새로운 삶과 공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소규모 인문연구공동체들의 움직임을 소개한다.

- **일상을 공부로 만드는 메커니즘 <포티스리싱즈43 Things>**

온라인 목표설정 커뮤니티로 목표 공개, 노하우 공유, 유대감 형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지속적 노력을 통해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포티스리싱즈는 주도적인 배움을 위한 꽤 훌륭한 도구이라 할만하다.

'시민이 주인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일상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통해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학습' 이것이 바로 평생학습이 갖는 의미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여 태동한 개념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단순히 주부 대상의 저렴한 취미 강좌로만 오인되기 보다는 관행화된 교육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답답한 우리의 교육 현실에 하나의 미래적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시민강사의 시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1 누구나학교

2 위즈돔Wisdome

3 숨쉬는도서관

4 언신투어즈Unseen Tours

평생학습 계에 부는 시민주도 바람 누구나학교

평생학습 계에 주도적 시민 참여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단순히 소비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와 강사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 프로그램도 이런 움직임 중 하나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축적된 지식과 재능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누구나학교. 하지만 누구나학교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의 나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확산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을 좀 더 풍요로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추가로 누구나학교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의 '숨은 교수 교실'도 함께 소개한다.

평생학습 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

급속한 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평생학습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쇠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92개의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체계를 갖추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평생학습은 대부분 하드웨어가 갖춰진 평생학습 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강좌를 수강하는 일정한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생학습 계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학습 기획자로 나서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적 참여자로서 수업에 참가한다. 전형적인 취미, 인문 교양 강좌 외에도 일상의 소소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학습의 공간이 평생학습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일상의 공간 속으로 옮겨가는 등 평생학습이 변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도 예외는 아니다. 일상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만들기에 한창이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축적된 지식과 재능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일적 자본제 하에서 생활해 오다 보니 교환가치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비용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 외에는 감히 강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강의가 되겠어?' '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주가 없어'라며 가르치는 일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비단 강단에 선 교수나 화려한 파워포인트로 무장한 전문강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깊은 연구를 토대로 한 전문적 지식영역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터득한 소소한 지혜도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식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강의를 전문가의 고고한 성체로 묶어 두면 갈수록 시대와 유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강사가 이끄는 수업에서는 강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분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협동하며 서로 배우는 평등한 관계로 형성된다.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다방향 소통과 나눔을 통해 서로 간의 경험과 지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배가된다. 이렇듯 일반 시민이 스스로 강의에 나서고 그래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접속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이 방식이 공동체와 접목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설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믿음 하에 시작된 것이 바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다.



-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학력, 나이, 직업,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 **필요한 모든 주제가 강의가 된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학습기관에서 미처 배우지 못하는 지혜, 지식, 노하우 등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지식, 재능, 소소한 일상, 경험, 재미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상호 협동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 **배움이 비싼 이유는 없다**

배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용 지불 없이도 다양한 배움에 기회를 가질수 있는 학교입니다.

- **사람과 마을을 연결한다**

우리마을에서 이웃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실현합니다. 누구나 선생, 학생이 되고 수원 곳곳이 학교가 됩니다.

누구나학교, 1년의 도전과 실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강의 계획을 짜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참가하는 시스템. 이것은 시민의 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도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계다. 평생학습기관의 기획으로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획과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학습이다.

누구나학교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00여 개의 강좌를 열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회적기업 대표,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난생처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타인 앞에 나서는 사람도 있다.

강좌의 주제나 횟수는 매우 다양하다. 단발성 강의로 끝나는 것도 있고 8회 동안 진행되는 강좌도 있다. 잘 기획된 강의나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우 강의를 지속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 타 기관에서도 진행하기도 했다. 독서코치의 '창조적 글쓰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매달 진행되고 있으며, 꿈지락샘의 '어린이 요리교실', 발명동아리의 '창의력 쑥쑥 나도 발명왕!'은 다른 기관의 인기 강좌가 되었다.

내용과 형식, 참가자의 연령과 경험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열리는 곳이 바로 누구나학교다.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었던 학습동아리들은 누구나학교를 통해 배움을 나눈다. 강의를 통해 동아리 활동도 알리고 누구나학교를 통하여 동아리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대학생이 여는 '커피향 가득한 통키타 교실'에는 40~50대 중년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고등학생은 어르신들을 위해 방학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배우기' 강좌를 연다. 생생놀이봉사단 어르신들은 동네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함께하며, 기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의 초등 동생들을 위한 '신문활용교육'을 진행하는 등 세대 간을 연결하는 수업도 누구나학교에서 열린다. 또한 의사선생님의 재능 나눔으로 진행되는 '굿바이 디스크'처럼 좀 더 전문적인 수업도 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 무엇이든 주제가 된다. 일상에서 땅의 삶을 살리고 치유하는 식물가꾸기, 재활용쇼퍼백 만들기 등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강좌나 영국에서 살다 온 주부가 가르쳐주는 '영국문화 들여다보기', '지식채널e로 세상보기' 등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평생학습의 다양한 모험이 시험되고 있다.



(좌측부터) 누구나학교에서는 아기를 데리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수강생이 한 명이어도 강의를 열린다. 카페에서 강의를 열리기도 한다.





누구나학교를 준비하고 만들어 온 1년간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사례조사 및 설계**

국내외 시민주도 학습과 관련하여 사례조사를 하면서, 수원시평생학습관처럼 공공기관에 맞는 시민주도 학습의 형태와 내용을 설계했다.

• **2단계 / 학습관 주도로 강사 및 강의 발굴**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 강사,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평생학습기관,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누구나학교 강사 모집'도 하였다.

• **3단계 / 강의개설과 신청을 위한 플랫폼 구축**

수원시평생학습관 일반강좌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과 신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누구나학교는 일반강좌보다 훨씬 간편한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간단히 회원가입만 하면 강의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강신청은 관심 있는 강좌에 댓글로 신청하면 완료되도록 하였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후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였다.

• **4단계 / 누구나학교 오픈**

현재 누구나학교는 연중 수시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월별로 홍보하고 모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누구나학교는 2012년 6월 27개의 강의를 열었다.

• **5단계 / 자발적 강의 개설 및 참여 형성**

학습관 주도로 강사와 강의를 발굴하였으나, 점차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강사, 동아리 회원들, 적극적 학습자들,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이 누구나학교의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강의 개설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주로 주부들의 참여가 많았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제는 고등학생, 직장인, 의사, 사회적기업가 등등 참여하는 대상이 다양하다.

• **6단계 / 네트워크 파티 운영**

누구나학교는 단순히 강의 개설을 몇 개 했는지, 몇 명의 참여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공유하고 협동하면서 크고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누구나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지

역에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7단계 / 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한 누구나학교는 1년간 200여개의 강의를 개설하였고, 1천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성공한 안착으로 누구나학교는 점차 수원 곳곳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누구나학교가 준비하는 미래

누구나학교는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다.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배움을 공유하고 협동하는 것이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강의를 열고 참여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더 풍부한 강의 개설하기, 더 많은 시민과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학습공동체가 마을공동체로 성장하기, 혁신적인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알려나가기 등을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 **함께 사용하는 홈페이지 구축**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 주민자치센터 누구나학교, 복지관 누구나학교 등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수원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누구나학교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코디네이터 양성 및 시민운영단 추진**

시민이 운영하는 누구나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오픈파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강의와 강사 발굴부터 운영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추진**

시청, 주민자치센터, 경찰청, 복지관, 카페 등등 어디서나 열리고, 공무원, 경찰기동단, 예술작가, 학생 등등 누구나 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학교 운영방법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설명회 및 오픈파티, 강사와 강의 발굴, 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학교 응원단 그리고 시민캠페인**

누구나학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1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누구나학교 응원단'을 구성하였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구성되어 있고 강의 개설, 강사 발굴, 시민캠페인, 자문 등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학교 응원단 발족에 맞춰 '수원시장이 여는 누구나학교'도 진행된다.

• **시민주도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 강화**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누구나학교와 같은 시민주도 평생학습을 보급해 나가고자 한다. 성공사례 보급, 사례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네트워크망 구축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학교에서 열린 200여 개의 강의는 그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다. 여기에는 200개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주부, 직장인, 학생, 경찰관, 공무원...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누구나학교는 이제 스스로 변화하며 성장할 것이다. 그 안에서 누구나학교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학교를 응원하는 사람들

누구나학교 유사 사례, 은평구의 '숨은 고수 교실'

누구나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수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의 '숨은 고수 교실'을 간략히 소개한다.

<명지대학교>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는 2012년 초부터 '숨은 고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을 가진 숨은 고수들의 지혜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배움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의는 모두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생, 주부, 만화가, 웃음치료사, 교육전문가, NGO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강사로 참여해 아기자기한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숨은 고수 교실'은 학교 밖 학습 기관에서도 여전히 강사 중심의 강의가 주류를 이루는 현실을 보면서 획일화된 학습 방식을 탈피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논의에 참여시켰다. 우려했던 것보다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입소문과 소개, 특히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던 동아리 활동 주민들의 추천과 참여가 프로그램의 조기 안정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양하게 열고 있는 '숨은 고수 교실' 프로그램 모습(출처:은평구평생학습관 블로그)

'숨은 고수 교실'의 강점 중 하나는 강사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변화에 있다. 전문강사와는 달리 시민강사의 경우 수업 진행 경험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진 강사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시민강사들의 수업은 한 가지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굴곡을 따라 마치 버라이어티쇼처럼 흘러간다. 예측을 넘어서는



의외성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업이 된다. 이러한 수업은 강사 본인 뿐 아니라 참여하는 수 강생들에게도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 된다. 집에서만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던 20대 여성이 숨은 고수 교실 강좌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낸 사례도 있다. 이런 순간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담당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다. 평범한 시민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강의를 열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변하고 또한 그 강좌 를 수강한 사람이 또 다시 용기를 내어 강좌를 여는 선순환 과정은 숨은 고수 교실 프로그 램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특별함이다.

숨은 고수 교실 프로그램에서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지역 거점 기관과의 협력이다. 다양한 숨은 고수 교실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발굴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데 지역 거점을 잘 살려서 그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사람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숨은 고수 교실은 단순히 학습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 역의 일꾼을 발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락처

홈페이지	수원시평생학습관 - https://learning.suwon.go.kr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 - http://nuguna.suwonedu.org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우만동)
전화	031 248 9700
이메일	suwonedu@suwonedu.org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제 20(2012.12.5.)호에 실린 '숨은 고수 교실' 인터뷰 기사 참조
- <은평구평생학습관> 웹사이트(<http://edu.eunpyeong.go.kr>) 및 블로그(<http://blog.naver.com/elearning>)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위즈돔Wisdome

위즈돔은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위즈돔Wisdome이라는 이름 은 Wisdom과 Dome이 결합하여 탄생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는 공간인 위즈돔. 그곳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에 대 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응원이 울려 퍼진다. 또한 누구에게나 열린 이러한 오픈 플랫폼은 경험의 양극화(소외계층의 경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위즈돔과 유사한 모임 플랫폼인 <러닝미>, <집밥>, <에브리클래스>, <온오프믹 스>, <후폴>도 함께 소개한다. ※ 아래 글은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인터뷰 기사를 재구성한 글이다.

지혜의 나눔을 통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즈돔은 한마디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위즈돔Wisdome이라는 이름은 Wisdom과 Dome이 결합하여 탄생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스토리와 콘텐츠 그리고 지혜 가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위즈돔이다. 이 를테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지혜를 쌓아 올린 사람을 만나 한 테 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플랫폼을 기반으 로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P2P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위즈돔이 아직까지는 좀 낯선 프로

세스이기 때문에 고개를 가우뚱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즈덤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각종 주제의 모임들

위즈덤을 설립한 한상엽 대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제는 검사 집안에서 검사 나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없다. 왜 그럴까. 자신이 만나는 혹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단, 그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 강연이나 책을 통한 만남은 일방통행 방식이라 허탈감이 크다.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소규모 만남이었다. 일대다의 한 방향 소통이 아니라 소규모의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공유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이후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로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위즈덤의 운영 방식 및 성과

위즈덤의 운영 방식 및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위즈도머'와 '위즈도미'

위즈덤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모임을 개설하는 사람을 위즈도머,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을 위즈도미라고 부른다. 사실 너무 낮은 용어다. 아직은 멘토(강사)와 멘티(수강생)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용어가 위즈덤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

• 위즈도미 특성

위즈덤 이용자의 구성을 보면 2/3 정도가 직장인이다. 직장인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 자기 삶의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1/3은 대학생, 주부, 중고생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모임과 위즈도머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에 위즈도미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15%정도 된다.

• 위즈도머 섭외 및 정보 관리

모임을 개설할 위즈도머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영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초기에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웹서핑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약 30% 정도는 위즈덤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즈도머도 있는데, 전체 위즈도머 중 10~20% 정도에 해당한다. 앞으로 그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다. 위즈덤은 타 유사 사이트와 달리 위즈도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람들이 반드시 위즈덤을 통해서만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즈덤이 아니더라도 상호 연락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더 나아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위즈도머들도 정보 공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모임 개설 조건

위즈도머는 자신이 판매할 콘텐츠를 직접 설정하고, 모임의 날짜와 장소, 가격(1~5만원, 평균 1만 5천 원)을 결정한다. 개설이 요청된 모임에 대해 그 내용과 접근 의도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일반 학원에서 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강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시킨다.



• 모임 규모

모임 규모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좀 있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3~4인 정도의 소규모 모임,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내의 모임을 개최하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의 밀도 있는 만남 보다는 다중의 익명성 속에서 지식이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 조직 형태

위즈돔은 2012년에 SK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콘테스트에서 수상했다. 그렇다고 위즈돔이 사회적기업은 아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부터 안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자립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위즈돔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볼 작정이다. 다만 서울 공유경제기업으로는 신청할 예정이다.

• 수익의 구성

위즈도미는 모임 참가비로 위즈도머가 설정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위즈돔은 참가비의 30%를 플랫폼 큐레이팅 비용으로 받는다. 또한 특정 행사나 모임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과 진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외 위즈돔을 통해 누려진 지혜 및 경험을 2차 저작 콘텐츠로 재생산한다. 이는 출판이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도 변화 가능하다.

• 1년 동안의 성과

2012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3년 3월 현재까지 약 960여 건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모임에 참여한 위즈도머의 수는 약 450명, 위즈도미는 약 6천1백 명이다. 위즈돔의 회원으로 가입한 숫자는 약 7천2백 명에 이르며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재이용 비율도 25%로 상당히 높고, 이용자 중에는 매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늘은 어떤 모임이 개설되었는지 체크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위즈도머의 수가 5천은 되어야

위즈돔의 앞으로의 계획은 위즈도머의 수를 5천 명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다. 그 정도 규모면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이나 학력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 조연과 격려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

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위즈돔다운 행사기획 등을 통해 2013년 상반기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는 동네 마을버스 아저씨, 구멍가게 할머니, 세탁소 아저씨 등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위즈돔의 공간을 채워갈 계획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는 공간인 위즈돔. 그곳에서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응원이 울려 퍼진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매개로 한 공간이 갖는 특징이자 매력이다.

위즈돔과 유사한 사이트들

참고로 위즈돔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임 플랫폼을 소개한다.

• 러닝미 LearningMe <http://www.learningme.com>

다양한 지식 및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모임을 중개하는 사이트다. 개인들이 본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 밥밥 <http://www.zipbob.net>

누구나 모임을 만들고 누구나 모임에 참여해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밥 모임이다.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며 교류할 수 있다. '소셜 다이닝'이라는 이 개념은 현재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소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 에브리클래스 EVERYCLASS <https://www.everyclass.co.kr>

다양한 오프라인 수업을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학생들은 수업 공지를 보고 마치 영화를 예매하듯 간편히 수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생님은 개인 강사부터 강의 기관까지 누구나 자신의 수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2012년 10월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 온오프믹스 ONOFFMIX <http://onoffmix.com>

각종 온/오프라인 모임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다. 업무 회의, 비즈니스 미팅, 교육, 세미나, 전



사회와 같은 공적인 만남부터 동호회, 모임, 파티, 취미활동, 공연, 시사회에 이르는 사적인 만남 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수 많은 모임들을 온라인 상에서 만들고 관리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클릭 한번으로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참석할 수 있으며, 다른 참석자들과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2008년 3월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 후폴Hooful <http://www.hooful.com>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다. 내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베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wisdo.me>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2길 8 유일빌딩 6층
전화 070 8260 5200
이메일 help@wisdo.me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제 24(2012.1.30.)호에 실린 <위즈돔> 인터뷰 기사 참조
- 위 글에 소개된 각 단체의 웹사이트
-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심포지엄」 위즈돔 자료 참조

사람책이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숨쉬는도서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사람, 즉 '사람책'을 빌려 주는 도서관이 있다. 2011년 마포에서 시작된 숨쉬는도서관은 덴마크에서 시작된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풀뿌리 단체인 <민중의 집>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였다. 숨쉬는도서관에서는 잘 나가는 유명인이나 전문강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일방적 강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남을 통해 독자들은 삶의 지혜나 정보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요시 하는 숨쉬는도서관의 비전은 '품을 나눌 이웃을 만나고 인생의 멘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다.

사람책을 빌려 드립니다

숨쉬는도서관은 책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빌려 읽는 도서관이다. 선택한 한 권의 책, 즉 사람과 마주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나게 된다. '사람책'의 지은이들은 소위 '잘 나가는' 유명인이 아니다. 골목에서 마주칠법한 '보통'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다. 일방적 강연이나 강의가 아닌 대화로 진행되는 평범한 소통

의 시간을 통해 독자들은 삶의 지혜나 정보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물론 사람책들도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영감과 배움을 얻는다.



숨쉬는도서관에서 사람책과 독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출처:숨쉬는도서관 웹사이트)

숨쉬는도서관은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인 <스탑 더 바이올런스 Stop The Violence (폭력을 중단하라)>에서 기획한 '휴먼 라이브러리 Human Library'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한 방법으로 2000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그 참신함과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더 휴먼 라이브러리 오가니제이션 The Human Library Organization>은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의 방법론, 경험 및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http://humanlibrary.org>).

세계 곳곳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방법론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회도서관, 대학, 구청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사람책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더체인지>의 사람책 프로그램인 '리빙 라이브러리' 소개 페이지 <http://thinkcafe.org/997#2>
- '리빙 라이브러리 in 제주' 홈페이지 <http://thinkcafe.org/livinglibrary>
- 대전에서 열린 '리빙 라이브러리' 후기 <http://pple.net/468>
- '리빙 라이브러리 in 부천' 카페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livinglibrarybcf>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가는 마을 커뮤니티

마포에서 진행되는 숨쉬는도서관은 2011년 5월 28일에 그 첫 행사를 개최했고, <민중의 집>이 주축이 되어 <공간 민들레>, <교육공동체 벗>, <망원청소년독서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그 후 약 4여 회에 걸쳐 청소년 및 2030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열었고,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숨쉬는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도서관을 열기도 했다. 숨쉬는도서관 행사 외에도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북 만들기 프로그램인 '사람책되기 워크숍'과 숨쉬는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담당자 양성을 위한 '사서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숨쉬는도서관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후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숨쉬는도서관은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람책 목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며 온라인 대출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온라인으로 사람책 목록과 독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대출신청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사람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나누고 사람책에게 질문도 하고 사람책을 추천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소통방법도 모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숨쉬는도서관이 꿈꾸는 비전은 '품을 나눌 이웃을 만나고 인생의 멘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다.

숨쉬는도서관은 특별한 원칙이나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숨쉬는도서관이 정리해 놓은 몇 가지 진행 방법은 눈여겨 볼만하다.

- 사람책 한 권당 대출시간은 보통 30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 사람책 한 명당 최대 3명의 독자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2회 진행됩니다.
- 사람책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지만 자신이 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독자가 무례하게 굴거나 인신공격을 한다면 사람책은 대출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사람책과 독자와의 만남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진행되고 연락처 등을 교환하여 따로 만나자고 하는 등의 자연스럽게 않은 부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의 예사롭지 않은 얘기들

숨쉬는도서관의 사람책은 소위 사회저명인사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 어찌 보면 비주류로 보이는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의 편견 속에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자신만의 꿈을 그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다.

숨쉬는도서관의 사람책 제목을 보고 있노라면 호기심이 발동한다. 꼭 한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숨쉬는도서관 웹사이트의 '사람책 찾아보기' 메뉴(<http://humanbooks.net/index.php?mid=humanbook>)를 클릭하면 2013년 3월 현재 55권의 사람책 목록을 만나볼 수 있다. 각 사람책 별로 서문과 목차, 참고 글이 매력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중 몇 권을 아래에 소개한다.

- 신한슬(소행주 '독립생활자특집' 거주자)의 '스무살, 독립 프로젝트'
- 최현숙(진보정치활동가, 요양보호사)의 '나쁜여자 어디든 간다'
- 황윤지(씨앗들협동조합 대표)의 '도시에서 배추, 딸기 키우는 무모한 청춘들'
- 김선(영화감독/비타협영화집단 곡사)의 '어쩌다 영화감독이라 불리는 30대 멘봉으로의 초대'
- 오혁준(자원활동을 하는 강연가)의 '취미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 박정경수(병역거부자)의 '군대를 거부하고 나의 길을 선택하다'
- 김우(마을활동가)의 '나는 별일없이 산다. 뭐 별 걱정 없이 산다'
- 최형숙(미혼모)의 '결혼을 안 해도 나는 엄마다'
- 류호철(로드스쿨러)의 '학교 밖 진짜 공부-길위에서 삶을 배우다'
- 최명훈(맥주매니저)의 '심심하면 안돼, 매일 즐겁게 사는 법'
- 천소현(여행작가)의 '남의 여행을 탐내지 말라'
- 주나라(HRD담당자 강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의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 우정호(인디밴드 뮤지션, 밴드 에센스) '시대의 반항아가 되자'
- 곽봉재(시민교육 PD)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고통과 즐거움'
- 이광익(가제트공방 공방장)의 '멈추고 나누면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 박정은(산티출판사 대표)의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딴짓' 일삼는 출판사를 일구다'
- 오진아(구의원)의 '동네 구의원의 좌충우돌 의정일기'
- 문성도(여행하는 수의사)의 '나에게 자유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별별 재미난 얘기를 만날 수 있는 숨쉬는도서관
(출처:숨쉬는도서관 웹사이트)

별별 사람들의 예사롭지 않은 제목들로 구성된 숨쉬는도서관의 사람책 목록. 사람책의 지은이와 제목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나만의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사람들의 발랄한 상상력과 용감무쌍함에 마음이 설렌다.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만의 인생스토리를 써 가는 이들의 모험담은 그 어떤 고매한 학문적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이론 강의보다 강력한 재미와 감동,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humanbooks.net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3-16 윤재빌딩 3층 민중의 집 (숨쉬는도서관의 운영주체인 <민중의 집> 주소)
전화	02 333 7701
이메일	humanbooks@hanmail.net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숨쉬는도서관 웹사이트(<http://humanbooks.net>)
- 사람책 컨셉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인 <더 휴먼 라이브러리 오가니제이션>의 웹사이트(<http://humanlibrary.org>)
- <더체인지>의 사람책 프로그램인 '리빙 라이브러리' 소개 페이지(<http://thinkcafe.org/997#2>)
-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블로그에 실린 숨쉬는도서관에 대한 소개글 (<http://bfchange.tistory.com/146>)

노숙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런던 공부 언신투어즈Unseen Tours

언신투어즈는 노숙인이 인솔하는 런던 도보 탐방 프로그램으로 2010년 8월 <사크 마브 이벤츠Sock Mob Events>라는 사회적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노숙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재편된 런던 거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경험담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여행 프로그램은 노숙인에게 자활의 기회를 탐방자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상징적 구호가 아님을 현실에서 생생히 증명하고 있는 언신투어즈. 이전에는 없었던 여행의 방식으로 우리의 두터운 편견과 선입관의 벽을 한 꺼풀 걷어낼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한다.

노숙인이 인솔하는 들도 보도 못한 여행

언신투어즈는 노숙인이 인솔하는 런던 도보 탐방 프로그램이다. 역사적인 명소나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둘러보는 일반적 관광 상품과는 달리 노숙인의 눈에 비친 런던 거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 경험담과 함께 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들도 보도 못한' 여행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진진한 런던의 길거리 역사와 소외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대안적 컨셉의 언신투어즈는 2010년 8월 <사크 마브 이벤츠Sock Mob Events>라는 사회적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크 마브 이벤츠는 <더 사크 마브The Sock Mob>라는 자발적 시민 모임에 의해 설립되었다. 더 사크 마브는 노숙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줄여 소외된 소수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약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노숙인과 말문을 트기 위해 양말이나 음식 등을 가져온 것에서 '사크(Sock, 양말) 마브(Mob, 사람들의 무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모임은 인터넷을 통해 약 400명의 자발적 시민 네트워크로 확대되었고, 이 모임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언리미티드UnLtd>라는 사회적기업 지원 단체로부터 4만 파운드(약 7천만 원)의 후원을 받아 사크 마브 이벤츠라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언신투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언신투어즈와는 별도로 더 사크 마브는 자발적 시민 모임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임 만들기 온라인 사이트인 <밋업Meetup(<http://www.meetup.com/thesockmob>)>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전에 못 봤던 투어'라는 손팻말을 들고 관광객을 기다리는 노숙인 가이드(좌)(출처:한겨레의 관련기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런던 뒷골목을 탐방하는 모습(우)(출처:가디언의 관련기사)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언신투어즈

언신투어즈는 금요일에는 오후 7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시작된다. 투어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지만 참가자들의 질문이 계속되거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3시간

이 넘도록 계속되기도 한다. 금요일 투어는 사전 예약이 필수며, 토요일과 일요일 투어는 사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5명 이상의 그룹이 주중에 신청하는 경우 그들만을 위한 투어 예약도 가능하다. 투어 예약은 <https://www.sockmobevents.com>에서 가능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각 투어마다 2명의 여유분을 남겨둔다는 점이다. 투어 요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 투어에 참여하는 노인이나 환자의 보호자 등이 무료로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투어 요금은 일반적으로 10파운드(약 1만7천 원)이며,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7파운드(약 1만2천 원)다. 티켓 판매액의 약 80%가 노숙인 가이드에게 돌아간다. 60%는 투어 가이드에 대한 수고비인데 노숙인의 선택에 따라 매주 또는 매월 지급되고, 20%는 교통비와 통신비로 지급된다. 나머지 20%는 보험료, 마케팅 비용, 자원활동가의 식비 및 교통비 등 단체 운영을 위해 쓰인다. 또한 노숙인에게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즉, 언신투어즈의 대부분의 수익금은 노숙인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립을 돕기 위해 쓰인다고 보면 된다.

거리의 시민이 들려주는 6인 6색 런던 이야기

언신투어즈의 런던 여행 코스는 모두 다섯 구역으로 나뉜다. 템스강변 골목 구석구석을 훑는 런던 브리지London Bridge 투어, 이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쇼디치Shoreditch 투어, 거리의 예술가들로 북적대는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투어, 거리 상점이 밀집된 다민족 커뮤니티인 브릭스톤Brixton 투어, 빈티지숍 및 베틀시장으로 유명한 브릭레인Brick Lane 투어. 이 투어의 가이드를 맡은 사람들은 헤이즐Hazel, 헨리Henri, 비브Viv, 리즈Liz, 비니Vinny, 잔John 이렇게 6명이다. 이들은 현재 노숙인이거나 이전에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써 각자 주로 거주하는 구역에 대한 가이드를 맡고 있다. 언신투어즈 사이트의 '미트 더 가이드즈Meet the Guides' 메뉴를 클릭하면 가이드 각자의 자기 소개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sockmobevents.org.uk/meet-the-guides>



언신투어즈의 6명의 노숙인 가이드(출처:언신투어즈 웹사이트)

이 6명은 가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자원활동가로부터 투어 가이드를 위한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단순히 가이드를 위해 필요한 내용 암기 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괴로움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의 관계 형성을 더 중요시 했다. 자원활동가가 노숙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노숙인은 투어 가이드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원활동가는 노숙인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는 노숙인 가이드가 단순히 신기한 구경의 대상으로 투어 참가자들에게 비취지기 보다는 사회에 공헌하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러한 관계의 연습을 통해 노숙인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투어 가이드로서의 책임감도 키울 수 있었다.

여기 6명의 노숙인(현재 또는 예전에 노숙인이었던) 가이드들의 자기 소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투어 가이드로서의 활동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런던 거리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또한 투어 가이드로 나선 이후에 노숙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수입이 늘어 주거 환경이 나아지기도 하고, 저널리즘을 공부해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시를 쓰는 이도 있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정말로

그 누구보다 런던 거리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런던의 노숙인들. 그래서인지 노숙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재편된 런던의 모습을 경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언신투어즈를 신청한다. 매년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런던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의 신청도 많지만,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런던 거리의 속살이 궁금한 영국 사람의 신청 비중이 더 크다. 런던 거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노숙인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대학 지리학과 교수가 투어에 신청하는 일도 종종 있다. 또한 호주, 루마니아, 싱가포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폴란드, 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언신투어즈를 벤치마킹하고자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노숙인은 환영 받는 존재가 아니다. 함께 있기 보다는 피하고 싶은 존재다. 아무 것도 가진 것도, 나눌 것도 없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이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다. 참 아이러니하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말을 그저 상징적 구호쯤으로 여겼었는데, 언신투어즈는 그 말을 현실에서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언신투어즈는 우리의 두터운 편견과 선입관을 한 꺼풀 걷어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sockmobevents.org.uk>
(언신투어즈 예약 사이트 <https://www.sockmobevents.com>)
전화 +44 7514 266 774/5
이메일 walk@sockmobevents.org.uk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언신투어즈 웹사이트(<http://sockmobevents.org.uk>)
- 언신투어즈 예약 사이트(<https://www.sockmobevents.com>)

- <더 소크 마브>의 모임 공지 및 신청 사이트(<http://www.meetup.com/thesockmob>)
- 언신투어즈에 대한 해외 신문 기사
(<http://www.guardian.co.uk/society/2010/aug/25/homeless-guides-tour-of-london>)
- 언신투어즈에 대한 국내 신문 기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1852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62148075&code=970205)

협동의 시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1 지혜로운학교

2 더체인지The Change

3 오픈소스Open Source형 지식정보 사이트

4 트레이드스쿨Trade School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습 공동체 지혜로운학교

지혜로운학교는 '배움과 나눔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서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회원 중심 학습 공동체다. 퇴직한 시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회원으로 참가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영국 U3A를 모델로 2011년 6월에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강사가 되어 가르치고, 학생이 되어 배울 수 있다. 이 때, 강사와 학생 간에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 참가자들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모두 함께 협동하여 배움을 만들어 간다. 또한 지혜로운학교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배움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아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둔다.

한국판 <U3A>, 지혜로운학교

지혜로운학교는 회원들이 서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 공동체다. 영국의 <유스리 에이>U3A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이하 U3A))를 모델로 2011년 6월에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혜로운학교에는 'U3A 서울'이라는 부제가 항상 붙어 다닌다.

영국 U3A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율적 자치적 학습 공동체다. 1982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 약 850여 개의 지역 U3A가 영국 전역에 존재한다. 그 회원 수도도 약 삼십만 명에 이른다. 대단한 성장력과 지속력을 겸비한 조직이다. U3A의 수업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U3A는 회원 모두가 서로 가르치는 동시에 서로 배우는 순환적 학습의 장이다. 또한 자율이라는 가치를 위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재정적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수업 진행 및 행정 업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무보수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운영 비용 역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U3A는 퇴직한 시니어들이 배움을 매개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참고: 영국 U3A 소개, U3A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12 수원시평생학습관 영국탐방자료집 - 다른 학습은 가능하다> 또는 U3A 웹사이트(<http://www.u3a.org.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혜로운학교의 설립 목적과 운영 목표를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설립 목적

누구나 강사가 되어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되어 배울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배움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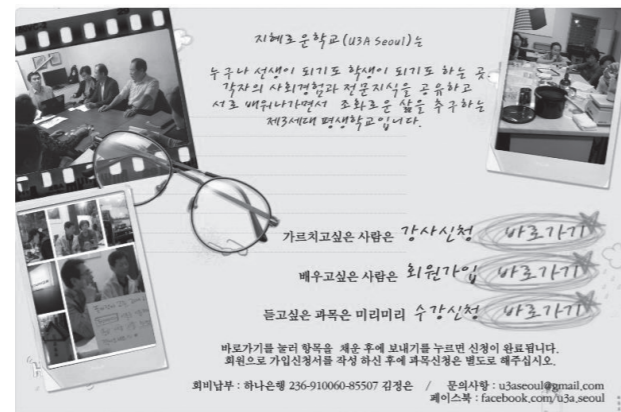
- ① 학습공동체의 구현
누구나 자신의 지식, 경험, 재능을 함께 나누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구현한다.
- ②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공헌 기회 제공
나눔과 봉사의 정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여함으로써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공공의 사회적 가치로 전환한다.
- ③ 대안적 학습모델 지향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수의 사람들이 학습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공유하는 평생교육의 대안적 모델을 구현한다.

④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학습복지 실현

지역·성별·학력·세대 등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학습의 복지를 실현한다.

‘배움과 나눔’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지혜로운학교의 온라인 카페에 실린 한 글귀를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혜로운학교는 평생의 배움을 남과 나누며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감사라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지도 않고, 수강생이라고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할 리도 없습니다. 배움을 나누면서 기쁘고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신청 및 수강 신청을 위한 지혜로운학교의 2013년 웹홍보물 (출처:지혜로운학교 웹사이트)

회원 중심의 자발적 자립적 학습 공동체

지혜로운학교는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시니어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를 이수한 시니어들의 모임인 <행설아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2011년 4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사진 교실을 진행하고 그 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6월에 5개 강좌로 구성된 지혜로운학교 1기가 발족되었다. 2012년까지 총 4기가 운영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위해 연간프로그램(3-11월)으로 전환되었다. 지혜로운학교는 기본적으로 회원 체제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구체적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강좌 개설

회원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회원들이 열고 싶은 강좌와 듣고 싶은 강좌가 기본이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강의 계획과 감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강의를 개설한다. 강좌를 선별하거나 폐지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듣고 싶어하는 회원의 신청이 있으면 개설되는 것이다. 즉, 강좌 개설 및 폐지 여부는 회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강사의 자격 요건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없다. 학력도 나이도 필요 없다. 그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만 있으면 된다. 강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알 필요도 없다. ‘라틴어 함께 배우기’ 수업은 제목 그대로 함께 배우기이다. 이 수업을 개설한 강사는 라틴어를 잘 하지 못한다. 그저 평소 관심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기는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강좌를 개설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거다. 그렇다고 강좌를 개설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 그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학교의 가치이고 감점이다.

회원 가입 조건 및 회비

회원의 가입 조건은 따로 없다. 회원들은 연회비 십만 원만 내면 1년간 모든 강의 및 회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평생회비는 오십만 원이다. 비회원인 경우 1인 1개 강좌에 한해 과목회비로 수강이 가능하다. 과목회비는 4회차 강의의 경우 2만 원, 6회차는 3만 원, 8회차는 4만 원이다.

단, 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모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고 지금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그쪽을 통해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혜로운학교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 상의 관련 정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수업 주제 및 내용**

특별히 정해진 주제나 내용은 없다. 회원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강좌의 주제가 된다. 2013년에는 약 25개의 수업이 수업 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9세기 프랑스 미술사', '이것도 미술이다용: 현대미술의 발견' 등의 문화예술 수업, '궁금하면 제자백가', '결정적인 책, 걱정적인 대화' 등의 인문교양 수업, '라틴어 함께 배우시다', '영어면접, 영어 프레젠테이션 방법' 등의 외국어 수업, '나의 조선왕릉 답사기', '마을에 있는것, 잇는것' 등 현장 수업, '일 잘하는 박주임의 엑셀 평정기', '책써서 출판하기', '시니어 강사되기' 등의 실용 수업 등 그 내용도 다양하고 알차다.

• **재정 및 행정**

지혜로운학교는 자립적 재정을 통한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며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한다. 모든 강의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단,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강의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운이 좋게도 지혜로운학교의 가치나 철학에 공감하여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선뜻 장소를 대여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 나타나 장소 문제 또한 큰 비용 지출 없이 해결하고 있다. 현재 삼청동과 서초동에 학습 공간을 두고 있다. 전반적 학교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기 운영에 대한 기획, 강좌 개설 관련 실무 진행, 강사들과의 중간 및 최종 평가



지혜로운학교의 학습공간. 뜻있는 분의 배려로 사용하게 된 서초동 공간(좌), 좁고 오래됐지만 정감 넘치는 삼청동 공간(우)
(출처:지혜로운학교 웹사이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점차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혜로운학교의 바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란다. 배움을 매개로 시니어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을 돕고, 강사와 학생 간의 이분법을 탈피하여 협동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대안적 학습의 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경험과 지혜의 나눔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이름 그대로 정말 '지혜로운' 학교이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openuniversity>
이메일 u3aseoul@gmail.com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제 5호(2012. 5. 9)에 실린 <지혜로운학교> 인터뷰 기사 참조
- 지혜로운학교 웹사이트

사회적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 더체인지The Change

더체인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을 만든다. 결과가 아닌 과정, 소유가 아닌 공유, 주장이 아닌 대화, 조직이 아닌 플랫폼을 중시하며, 컨퍼런스@대화, 오픈 컨퍼런스, 모.떠.꿈 워크샵, 소셜아젠다 캠페인, 씽크카페 with 카페더웨이, 더 넥스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더체인지의 실험을 따라가다 보면,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수많은 대중이 참여하여 만드는 열린 플랫폼의 확장성과 역동성에 놀라게 된다. 이러한 열린 플랫폼에의 참여가 우리들에게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더체인지

더체인지는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비영리단체이다. 더체인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다고 믿는다. 모든 변화의 씨앗은 대화로부터 싹트고, 한 사람의 동조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생각과 경험을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널리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로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불가

능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실현 가능하다. 인터넷, SNS 등 새로운 기술적 도구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는 결과가 아닌 ‘과정’, 소유가 아닌 ‘공유’, 주장이 아닌 ‘대화’, 조직이 아닌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이다.



더체인지의 주요 열쇠말이라 할 수 있는 변화CHANGE, 사람PEOPLE, 플랫폼PLATFORM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더체인지의 홈페이지(http://thinkcafe.org)

더체인지가 만들어가는 플랫폼은 상시적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온라인일 수도 오프라인 공간일 수도 있다. 더체인지는 이러한 열린 공간을 ‘씽크카페ThinkCafe’라 부른다. 주제별 또는 지역별로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한 씽크카페의 운영 상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씽크카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좋은 질문과 생산적 대화의 원칙**
개최하고자 하는 씽크카페의 주제는 참가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정하고,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화의 기록과 정보 공유의 원칙**

발표자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씹크카페의 모든 대화 내용들은 메모, 그림, 텍스트,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들은 모두 인터넷에 공유합니다.

• **토론과 협력, 지속성의 원칙**

씹크카페가 끝난 후 인터넷에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추가 대화를 나누거나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더 많은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컨퍼런스인 '2012년 오픈컨퍼런스의 홍보물 일부 (출처:더체인지 웹사이트)

대중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대안적 미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이 대중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더체인지는 다양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실험 중이다.

• **컨퍼런스@대화**

컨퍼런스@대화는 발표만 듣고 가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참가자들간의 테이블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해법을 함께 찾아보는 참여형 컨퍼런스이다. 2011년 5월 13일, '우리가 함께 결정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컨퍼런스가 열렸고, 2012년 6월 30일에는 '불(不)로 둘러싸인 2012 한국사회, 불 끄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렸다. 2012년 컨퍼런스에서는 불신, 불안, 불통, 불행이라는 네 가지 열쇠말에 대해 사전 대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하기도 했다.

• **오픈컨퍼런스Open Conference**

오픈컨퍼런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으로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이다. 2011년 10월에 '2012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2013년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50개의 컨퍼런스가 열렸다. 보통 컨퍼런스는 특정 기관이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은 후에 발표를 듣고 그 안에서 대화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오픈컨퍼런스는 하나의 개별 행사가 아니다. 매년 특정한 테마에 맞춰 누구든지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컨퍼런스이다.

• **모.떠.꿈 워크샵**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새로운 방법들) 워크샵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틀 또는 삼일 동안 진행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는 조직 내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떠.꿈 매뉴얼(http://thinkcafe.org/changeways_manual)에 들어가면 오픈스페이스, 월드카페, 타운홀미팅, 랫츠컨퍼런스, 이그나이트, 마인드맵 등 퍼실리테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아주 유용하다. 또한 본 매뉴얼은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 즉 '위키' 방식으로 작성된다.



모.떠.꿈 워크샵 소개 페이지(<http://thinkcafe.org/changewaysworkshop>)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사람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 **소셜아젠다 캠페인Social Agenda Campaign**

소셜아젠다 캠페인은 더체인지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2012년 3월부터 함께 시작한 '더프로젝트-우리가 만드는 미래'의 온라인 프로젝트이다. 더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집단지성 방식으로 찾는 프로젝트이다. (1)브레인스토밍 (2)연속 콜로키움 (3)온라인 집단지성 프로젝트, 소셜아젠다 캠페인 (4)우리가 만드는 미래 보고서(가칭) 발간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브레인스토밍과 콜로키움 단계를 거쳐 나온 주요 비전에 대해 소셜아젠다 캠페인(트위터 메시지 기부, 페이스북 토론, 위키 방식의 문서작성 도구인 구글문서를 활용한 정보 큐레이팅 등의 참여 방식을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어 교환, 집중 토론, 관련 정보들의 체계적인 정리)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찾아 낸다. 이렇게 모아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칭)'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후 소셜아젠다 캠페인 사이트는 정책 관련 토론과 아카이브 사이트로 전환될 예정이다.
<http://socialagenda.kr>

• **씹크카페 with 카페더웨이 ThinkCafe with Cafe The Way**

더체인지의 오프라인 공간이다. 인터넷 상의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도 옮겨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012년 9월에 문을 열었다. 씹크카페의 다양한 모임이 열리고 테드TED형의 작은 강연들이 열리며, 작은 이야기콘서트도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워크숍을 열 수도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열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간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만드는 네트워크이다. <http://thinkcafe.org/thinkcafe>

• **더 넥스트 The Next**

더 넥스트는 사회혁신과 정치혁신을 만나게 하는 커넥터 역할의 수행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정부나 정당, 그리고 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기에는 그 속도가 더디고 또한 시민지성의 상상력을 못 쫓아온다는 판단 하에, 정책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사회혁신적 모델 만들기를 지향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도구와 기술의 진보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예로는 오픈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오픈캠페인 No.1 - 45개의 정치수다와 투표액션캠페인'과 청년들의 집단지성 프로젝트 '소셜스터디 2013' 등이 있다. 소셜스터디 2013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공유해야 할 가치와 방향, 그에 대한 정책과 혁신적인 사례 등을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작성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http://thinkcafe.org/thenext>

사실 더체인지의 실험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인터넷 및 다양한 SNS 도구를 통한 활동이 많아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좀 정신 없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더체인지의 실험

을 따라가다 보면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수많은 대중이 참여하여 만드는 열린 플랫폼의 확장성과 역동성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관계망과 이로 인한 복잡성이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더체인지의 도전적 실험과 그로 인한 변화를 앞으로도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thinkcafe.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inkcafe , 트위터 @wethinkcafe, 비메오 http://vimeo.com/thinkcafe ,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thinkcafe , 플리커 http://www.flickr.com/photos/thechangenet)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 예량빌딩 4층(씹크카페 with 카페더웨이 주소)
전화	02 322 5110(씹크카페 with 카페더웨이 전화번호)
이메일	wethinkcafe@gmail.com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더체인지 웹사이트 및 연결사이트

일거다득의 학습 공간

오픈소스Open Source형 지식정보 사이트

인터넷 상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함께 고쳐 나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를 오픈소스형 지식정보 사이트라고 한다.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이트를 소개한다. 학습/교육 자료 관련 오픈소스형 지식정보 사이트인 <커넥션즈>, 각종 기기를 고쳐 쓸 수 있는 매뉴얼을 함께 작성하고 공유하는 <아이픽스잇>,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과학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인사이클러피디어 어브 라이프>. 그 외 흥미 있을만한 사이트 주소 몇 개도 추가로 덧붙였다. 이러한 오픈소스형 지식정보 사이트는 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개인 자신의 배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일거양득, 아니 일거다득의 효과를 내는 학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공동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진보한다

생산자나 수혜자가 따로 없이, 공동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진보하는 지식정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오픈소스형 지식정보 사이트. 지금은 아주 흔하고 당연한 존재가 되었지만 2001년 1월 15일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그 컨셉의 파격성으로 사람들을 의아해하게 했던 <위키피디아>가 그 대표 주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상 내용의 질에 대한 의문, 책임

성과 권위의 부족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의 지식이 방대한 분량으로 자세히 수록될 수 있고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모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정제되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 진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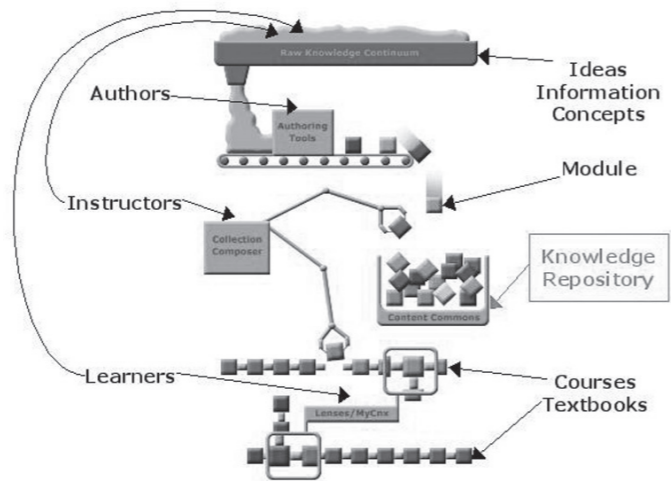
클릭 몇 번만으로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오픈소스형 지식정보 사이트. 그 중 세 가지 사이트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커넥션즈Connexions 교육/학습용 자료 공유 사이트

커넥션즈는 누구나 참여하여 교육/학습용 자료를 만들고 이를 모두가 함께 무료로 공유하는 비영리 온라인 사이트다.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나 주제, 즉 ‘모듈’ 단위로 작성된다. 이러한 모듈 단위 콘텐츠를 마치 레고블럭을 조립하듯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컬렉션’ 즉 나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계나 순서로 지식이나 정보를 흡수하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의 내용이나 정도도 다르고 지식이나 정보를 섭렵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렇기에 모듈 단위로 지식을 관리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맞도록 교재의 내용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만 7천 개 이상의 모듈과 1천 개 이상의 컬렉션/교재가 등록되어 있다. 수학, 과학, 역사, 영어, 심리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 학생, 학교 당국, 학부모 등 한 달에 약 2백만 명 이상이 커넥션즈를 사용한다. 모듈 작성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피드백 및 공동작업 기능, 작성된 학습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한 퀄리티 컨트롤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커넥션즈는 리차드 배라닉Richard Baraniuk 교수의 책임 하에 <라이스 대학Rice University>의 지원과 <더 윌리엄 앤드 플로라 휴렛 파운데이션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의 후원으로 1999년에 시작되었다.



모듈 작성자Authors, 모듈 조합을 통한 컬렉션/교재를 만드는 사람Instructors, 학습자Learners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커넥션즈 운영 개념도 (출처:커넥션즈 웹사이트)

아이픽스잇iFixit 기기 수리 공유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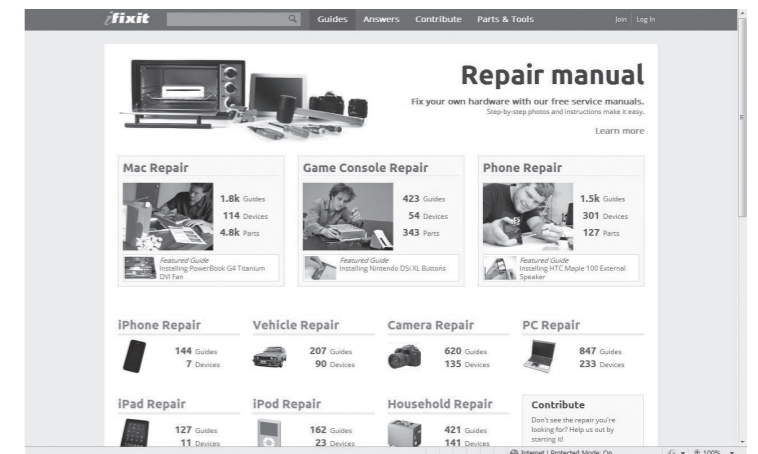
아이픽스잇은 스마트폰, PC, 자동차, 가전제품 등 각종 기기에 대한 수리, 업그레이드, 분해 매뉴얼을 함께 작성, 편집하고, 무료로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여러 사람들의 협력으로 믿을 만하고 이해하기 쉬운 고품질의 수리 정보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이픽스잇은 매뉴얼 작성 및 공유에 필요한 팁을 깔끔히 정리하여 제공하고, Q&A 섹션도 운영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흠뻑 묻어 나는 사이트다.

아이픽스잇은 2003년에 카일 웬스Kyle Wiens라는 대학생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다. “고쳐 쓰는 오래된 미덕을 재발견하여 기기 사용 기간을 연장하자. 고쳐 쓰는 것이 리사이클링보다 낫다. 고쳐 쓰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배울 수 있다. 고쳐 쓰기 위해 분해할 수 없다면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 함께 고쳐 쓰기를 통해 소유를 넘어 연대가 가능하다. 고쳐 쓰기는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매니페스토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픽스잇은 고쳐 쓰기를 통해 전자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고쳐 쓰기 위해 분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ifixit.org>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2011년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플 등 기업의 IT 기기 제품 분해, 분석 및 그 내용 공유로 세간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업들로부터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말이다.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후원도 받지만 ‘사람들을 위한 무료 매뉴얼 공급’이라는 미션을 지속하기 위해 고쳐 쓸 때 필요한 부품이나 연장, 도구도 판매하고 있다.



아이픽스잇 사이트의 '매뉴얼' 페이지.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고쳐 쓰기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인사이클러피디어 어브 라이프Encyclopedia of Life, EOL 생명체 정보 공유 사이트

인사이클러피디어 어브 라이프(이하 EOL)는 과학자와 일반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동식물, 곰팡이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고 이를 모든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하는 비영리 사이트이다. 시민들은 각 개체와 관련된 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텍스트 등을 추가하여 보다 완벽한 정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백9십만 종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을 목표로 2008년에 사이트가 오픈되었다.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9월 현재 7십만여 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2013년 3월 현재, 1백3십만여 웹페이지, 6만5천여 명의 회원, 185개 커뮤니티 그룹, 242

개의 콘텐츠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EOL의 홈페이지

다양한 오픈소스 지식정보 사이트들

그린맵Green Map

<http://www.greenmap.org>

친환경 관련 장소 및 단체 등에 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가는 사이트

엔비우Enviu

<http://enviu.org/our-work/open-source-house>

저소득 국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디자인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건축가들의 사이트

사하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Sahana Software Foundation

<http://sahanafoundation.org>

각종 재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

엠이Amee

<https://www.amee.com>

지구상 모든 것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유하는 사이트

플로스원Plos One

<http://www.plosone.org/home.action>

소수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만이 저널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학술지 시스템에 반대하여 누구나 저널을 저술, 발표, 공유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서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

연락처

홈페이지 커넥션즈 - <http://cnx.org>

아이픽스잇 - <http://www.ifixit.com>

EOL - <http://eol.org>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소개된 각 단체의 웹사이트
- 친환경주의 미디어인 <트리허그Treehugger>의 오픈소스 관련 글(<http://www.treehugger.com/clean-technology/11-open-source-projects-that-make-free-information-rock.html>)
- 소개된 각 단체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정보(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 <네이버 지식 백과>의 오픈소스 관련 정보(<http://terms.naver.com/index.nhn?mobile>)

물물교환으로 운영되는 학교 트레이드스쿨 Trade School

트레이드스쿨은 소위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다. 수업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학생들이 강사에게 선물을 준다. 트롬본으로 연주하는 세레나데, 치즈 한 덩어리, 양말 한 켤레, 여행지 추천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기반하여 2010년 뉴욕의 한 작은 공간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된 트레이드스쿨은 기대와 달리 큰 히트를 쳤고, 지난 2년 동안 전세계 10개 국 15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물물교환이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람에 대한 선의와 호의,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트레이드스쿨.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훌륭한 훈련의 장이 되고 있다.

수업료, 돈으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요?

트레이드스쿨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강사를 위해 특별한 수업료를 준비해야 한다. '나는 왜 비이성적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A씨가 학생들에게 수업료로 요청한 것은 2가지 아이디어이다. 지난 2주 동안의 결정 중 잘한 결정 한가지, 그리고 과거 5년을 돌아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결정 한가지. 한편, '예술가를 위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강사 B씨가 수업료로 받고 싶은 것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조언

이나 돈이 무한정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것들 같은 아이디어이다. 트레이드스쿨에서의 수업 진행이 처음이 아닌 B씨는 트위터 개인지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법, 록밴드 추천 등을 수업료로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트롬본으로 연주하는 세레나데, 치즈 한 덩어리, 양말 한 켤레, 초콜릿 등을 수업료로 희망한 강사들도 있다.

트레이드스쿨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이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때 수업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함께 작성한다. 강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물건이나 아이디어, 경험 등 무엇이든 수업료 목록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제외하고 말이다. 수업의 주제는 뜨개질, 인물 사진 찍기 등과 같은 구체적 활동에서부터 '백일몽이란', '유명사냥의 기초' 등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도 가능하다.



트레이드스쿨의 수업모습.
버터 만들기(좌), 음식 투어(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하기(아래)
(출처:트레이드스쿨 웹사이트)

화폐교환에서 느낄 수 없는 물물교환의 맛

트레이드스쿨은 3명의 상상력으로 2010년 뉴욕의 한 상점에 딸린 작은 공간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큰 히트를 쳤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 10개 국 15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돈이면 다 되는 화폐 만능의 시대에 물물교환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학교라니. 트레이드스쿨에 참석한 한 강사는 물물교환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물물교환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람

에 대한 선의와 호의,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저녁 식사에 초대된 친구가 식사 후 돈을 내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덧붙인다.

수업에 참석한 한 참가자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트레이드스쿨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관심사가 비슷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업료를 내는 느낌이 참 좋아요. 사실 수업료가 15달러(약 1만 7천 원)였다면 신청 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강사님을 위해 벨기에산 고급 맥주 한 병을 가져올 용의는 충분히 있었죠. 사실 트레이드스쿨을 통해 제가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것도 기꺼이 가져올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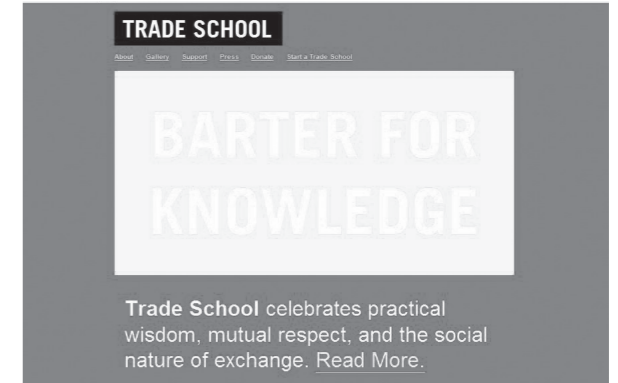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

트레이드스쿨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학교다. 트레이드스쿨이 진지하고도 엄격히 지켜가고자 하는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트레이드스쿨은 강사와 학생 간의 물물교환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 트레이드스쿨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비금전적 가치의 힘을 믿는다.
-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적 기술, 경험적 지식에 동등한 가치를 매긴다.
- 누구나 뭔가 제공할 것을 가지고 있다.
- 우리는 사람과 아이디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 트레이드스쿨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 우리는 권한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권력의 축적을 경계한다.
- 우리는 강압이 아닌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 트레이드스쿨은 항상 학습하고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조직이다.

사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엄격히 지키는 것에 비하면 말이다. 협동조합, 물물교환 등의 가치에 영감을 받아 트레이드스쿨을

처음 시작했던 3명의 설립자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트레이드스쿨을 시작해 보고 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공유하고자 한다.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해 낸 보물 같은 보고서는 <http://tradeschool.coop/start-a-tradeschoo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험적 지혜, 상호 존중, 교환의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트레이드스쿨의 홈페이지

쉽게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트레이드스쿨의 원칙에 맞도록 해결하고자 애쓰며 몸과 마음으로 용기있게 터득해 낸 몇 가지 실천적 노하우를 소개한다.

- **강사 선정의 문제**
트레이드스쿨은 강사를 선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고 믿으며 특정 그룹이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다. 강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 99%가 수업으로 채택된다. 제안된 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드백을 제공하고 강사들과 협조하여 수업 내용을 개선한다.
- **다양성 확보의 문제**
트레이드스쿨의 수업에 동질적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소위 ‘교육을 많이 받은 백인 코카시안 예술가만이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한다. 트레이드스쿨이 진정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가’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레이드스쿨은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단체와 네트워킹하며 좀 더 광범위하게 열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레이드스쿨이 지향하는 가치는 상호존중의 문화이며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에 맞설 때만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강사의 희망목록**

이따금 강사 중에 받고 싶은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를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등, 원가를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등, 돈으로 달라는 등의 여러 이유로 말이다. 이럴 때는 다른 강사들의 희망목록을 예시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강사가 긴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수업 후 청소를 돕게 한다든지, 수업 운영을 돕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물교환의 장으로 꼭 끌어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드스쿨은 교환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 **공간 확보의 문제**

2010년 시작 당시에는 설립 멤버 중 한 명이 디자인 작업을 해주고 물물교환으로 상점에 딸린 작은 공간에 대한 한 달 사용권을 받아서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2011년에는 물물교환을 통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간을 임대할 수 밖에 없어서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 물물교환으로 운영되는 트레이드스쿨에서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른 방식으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아보니 변화한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비어있는 작은 공간은 충분히 있었으며, 잉여 공간을 무상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2012년에는 어떤 문화 단체의 공간 기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트레이드스쿨에 대한 입소문이 나서인지 무료로 공간 사용을 제안하는 단체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제안을 무조건 수락하지는 않는다. 공간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될 때만 수락한다. 트레이드스쿨은 상호존중과 호혜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 **웹사이트 구축의 문제**

각자의 지역에서 트레이드스쿨을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보고서의 '5.소프트웨어The Software'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

관계 맺기의 연습이 필요한 시간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려 든다. 모든 것을 돈벌이로 둔갑시켜 상

품화하는 시대. 이제는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만 한다. 사실 주고 받을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괜히 아쉬운 소리 할 일도, 감정을 소비할 일도 없다. 소위 '쿨'한 관계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진정한 관계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 헛헛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 다시 지갑을 활짝 열고 소유를 위한 소비에 열을 올린다.



사람들 간의 호혜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레이드스쿨(트레이드스쿨 소개 동영상 중에서 <http://tradeschool.coop/about>)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얽히고설킨 관계를 절단 내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법.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연습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에게 트레이드스쿨은 훌륭한 훈련의 장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건 무리한 일일까?

연락처

홈페이지	http://tradeschool.coop
전화	+1 401 935 3071(후원 관련 문의 시, 창립자 중 한명인 캐롤린 우러드Caroline Woolard의 전화번호)
이메일	info@tradeschool.coop

-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트레이드스쿨의 웹사이트
-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트레이드스쿨 관련 기사 (<http://cityroom.blogs.nytimes.com/2010/02/23/a-trade-school-where-ideas-are-currency>)
- 공유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쉐어러블shareable>에서 트레이드스쿨 창립자인 캐롤린 우러드Caroline Woolard를 인터뷰한 내용(<http://www.shareable.net/blog/barter-based-school-goes-global>)

건물도 없고 책도 없는 네트워크형 마을도서관 똑똑도서관

똑똑도서관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네 도서관이다. 파주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에 문을 연지 몇 달 안된 따끈따끈한 도서관이다. 전형적 도서관과는 달리 건물도 없고 책도 없다. 각 가정마다 가득한 책들을 이웃과 서로 돌려보는 주민 간 책 나누기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똑똑도서관은 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책의 지식과 주민의 경험, 사람의 정이 함께 흐르는 똑똑도서관은 시멘트로 뒤덮인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바꿀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솔루션이라 할만하다.

※ 아래 글은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인터뷰 기사를 재구성한 글이다.

지도에 없는 네트워크형 도서관

똑똑도서관은 파주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만든 동네 도서관이다. 문을 연지 몇 달 안된 따끈따끈한 도서관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도서관을 찾아 길을 나선다면 필경 낭패를 보고 말 것이다. 이 도서관은 네비게이션으로도 찾을 수 없고 구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라 하면 응당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건물이 없다니. 게다가 똑똑도서관은 도서관 부지나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서가를 채울 책 한 권 구입하

지 않고 시작된 도서관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도서관이 가능한 걸까. 그 이유는 똑똑도서관이 전형적 도서관과는 달리 네트워크형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각 가정마다에는 자녀들 책부터 부모의 책까지 수십, 수백 권의 책이 책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한번 본 이후에는 별로 선택 받지 않을 책들이 각 가정의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집안에 묵혀 있는 이런 책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나 아파트 단지는 이런 교환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해당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 잠자고 있는 책들을 등록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똑똑도서관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주민 간 책 나누기 네트워크다. 파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총 1,500세대이니, 물론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각 세대별로 100권씩만 등록한다면 이 아파트는 15만 권의 장서를 갖춘, 웬만한 도서관 보다 많은 지식의 보물창고가 되는 것이다. 도서관에 필요한 부지나 건물 없이, 새로운 신간도서 구입이나 사서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니. 한때 '기적의 도서관'이 유행했었는데, 이런 도서관이야말로 진정 '기적'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형식과 내용을 갖췄다 할 만하다.

책의 지식과 사람의 정이 함께 흐르는 도서관

똑똑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03동 503호 아무개의 소장도서 리스트'라고 목록을 쓰고 '103동 503호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오시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는 공지를 덧붙여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목록을 공개한 아파트 주민은 사서가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주민들은 책을 빌리기 위해 특정 도서관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 등록된 책을 보고 그 책을 등록한 집으로 향하면 된다. 바로 옆집일 수도 있고 옆 동일수도 있다. 그야말로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 정해진 방문시간에 맞춰 책을 빌리러 가는 것이고, 또한 같은 단지라는 최소한의 유대감이 있으니 큰 거부감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다.

현재 이러한 책 등록 및 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똑똑도서관 전용의 홈페이지

를 제작 중이다. 참가를 하고 싶긴 한데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소식지도 병행할 예정이다. 본인 책을 전부 등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권만 등록할 수도 있다. 물론 책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책을 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똑똑”

“누구세요?”

“네, 503호 주민인데요,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일반 도서관에서 대출하듯 그렇게 사무적으로 책만 달랑 집어 들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책을 빌리러 왔다가 봄별 가득한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을 화제로 혹은 장바구니 물가를 가지고 때로는 이웃간의 공동체를 주제로 담소도 나눌 것이다. 작지만 조금씩, 그렇게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들을 서서히 열리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똑똑도서관이다.

주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익어가는 마을

똑똑도서관은 인터넷에 떠돌던 ‘프로젝트: 노크 노크 라이브러리 **Project: Knock Knock Library**’에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다.

기획에 참여했던 동네 주민 중 한 명이자 똑똑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씨는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다. 아파트입주자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승수 씨는 회장 시절 다양한 시도를 했다. 케익 받기 공모, 단지 주변에 꽃 심기, 회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아파트 주민들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회의 장면 공개, 동네 상권 살리기 이벤트, 아이들 베품시장, 가족 음악회 등 아파트에서 재미있을 만한 일을 이것 저것 찾아내서 진행했다.

특히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오픈컨퍼런스’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오픈컨퍼런스는 마을의 각종 이슈에 대해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열린 컨퍼런스다. 이런 열린 소통과 공동의 경험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불거진 밀도 끝도 없는 불신과 루머, 뒷담화도 줄어들었고 서로



오픈컨퍼런스 현수막 및 관련 공고. 90여 개의 아파트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2011년 10월 25일 오후 8시부터 밤늦게까지 동대표와 부녀회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아 보았고,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을 거쳐 최종 10개의 아이템이 선정되었다. 이는 다음해 사업에 반영되었다. (출처:제1회 오픈컨퍼런스 결과보고서)

간 이해의 폭도 커지게 되었다. 아파트에 예전과 다른 새로운 기운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범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김승수 씨의 마을 참여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회장 활동 당시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던 얘기가 바로 아파트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의견이었다. 주민들과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만들었고 여기서 똑똑도서관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2012년 열린 오픈컨퍼런스. 김승수 씨의 집 거실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출처:제2회 오픈컨퍼런스 결과보고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열린 공간

똑똑도서관에서는 책 공유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강좌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름을 정할 때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학교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주요한 매개가 책이고, 다양한 문화운동과 지역운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와 한 사람의 이야기와 경험도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도서관으로 결정하였다.

사람을 빌린다는 것은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빌려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동네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 사람을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몇 가지 수업을 시작했다. 리본강좌는 현재까지 3기째 운영되고 있다. '허당김국의 얼렁뚱땅 레시피'는 8회 정도 진행이 됐다. 서로 만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데일리드로잉 수업도 진행했다. 리본 만들기 강좌는 아이를 재운 후 늦은 밤에 모이기도 했었다. 강좌이자 친목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공감을 하니 주부의 우울증도 힐링이 된다. 이제는 주부들이 그 모임을 많이 기다린다. 어떤 강좌들은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도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재미있고 즐거우니 그런 자발성과 참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저런 강좌에 참여하면서 가족간에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족간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참여자들도 있다. 이제는 서로 가족들을 초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앞으로는 아빠들만의 모임도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이다. 술 먹고 소모적인 모임이 아니라 편하지만 우리 삶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말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모임이나 활동은 자율적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 지원의 사업은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도 밟아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하고 예산결산서도 작성해야 하는 등 신경 쓸 일도 많고 간섭도 많이 받게 되기 마련이다. 그냥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좋다. 비용은 서로 1/N로 나누면 되고.

똑똑도서관의 미래

아파트가 예전의 마을모습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새로운 희망이 움트지 않을까 생각한다. 똑똑도서관이 기획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면 더욱 기대된다.

- **우리아파트 리빙라이브러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중 좋은 멘토를 찾아 사람책으로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 **북 페스티벌** 파주 출판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는 강점을 살려 지역 출판사들과 연계해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자 한다. 지역과 기업이 마을과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출판** 주민이 함께 만드는 일상과 변화에 대해 기록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자 한다.
- **맛있는 음악회** 아파트의 다양한 공간이 음악회의 무대가 된다. 유명한 아티스트나 화려한 연주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려 한다.
- **우연히 받게 된 책** 정말 우연히 받게 된 책이다. 후원이나 증정 받은 책을 추첨을 통해 간단한 편지와 함께 주민의 우편함에 꽂아둔다.

차가운 아파트 단지를 따뜻한 마을로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Valerie Gelezau가 한국을 둘러보고 깜짝 놀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저술할 만큼 한국의 아파트는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엄청난 번식을 거듭해 1975년도 1.9%이던 거주형태 비중이 2010년에는 약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런 아파트는 이제 한국인의 삶의 형태와 생활문화까지 바꾸어 놓았다. 다른 아파트에 가려면 단지 초입부터 경비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함부로 건물 안에 발을 들여 놓을 수도 없다. 그리고 두꺼운 철골의 문은 이웃을 향해 결코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 이제 아파트는 철옹성이 되었다. 마을이 해체된 그곳에는 이제 이웃과 주민은 사라지고 오직 입주주민만 덩그러니 외롭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장점이 있다. 홈페이지가 있고 동별로 쉽게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방송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똑똑도서관은 시멘트로 뒤덮인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솔루션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너무 부담주지 않으면서 힘을 빼고 천천히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knockknocklibrary.com>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와」 제 29(2012.4.10.)호에 실린 <똑똑도서관> 인터뷰 기사 참조
-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심포지엄」 똑똑도서관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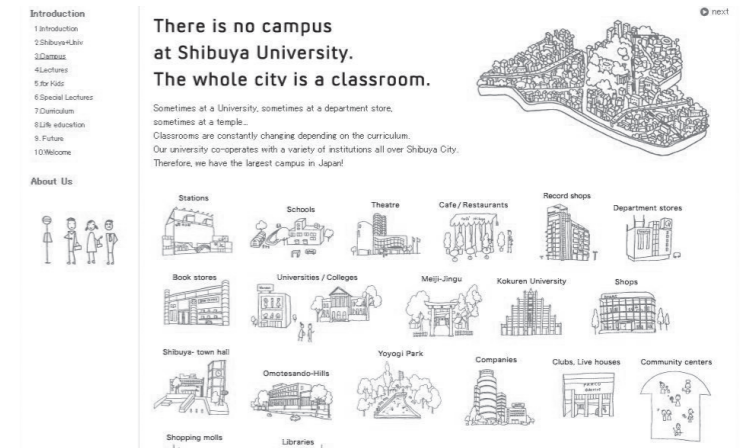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마을 시부야대학

20만 시부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을 캠퍼스로'라는 기치 아래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 캠퍼스로 삼고 있는 시부야대학.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가르치는 이곳은 2006년에 창립된 이래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시부야대학의 관심이 단지 수많은 강좌 제공에만 있는 건 아니다. 강좌는 어쩌면 매개물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강좌를 통한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 시부야대학 자체를 커다란 커뮤니티로 만들기,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시부야대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지역의 인적·물적·자연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시부야대학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 된다.

※ 아래 글은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인터뷰 기사를 재구성한 글이다.

도시 전체가 캠퍼스인 대학

도쿄 23개 특별구 중 하나인 시부야는 쇼핑과 문화, 관광과 젊음이 넘쳐 나는 도시다. 일본 최대의 레코드점이 있고 크고 화려한 백화점이 몰려 있으며 도시는 늘 청년과 관광객으로 넘쳐 나는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화려함과 홍대의 젊음이 합쳐진 도시쯤 된다고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인구 20만 명 정도 규모의 그리 크진 않은 도시지만 시부야에는 일본에서 제일 큰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 있다.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수십 배는 더 넓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하는 시부야대학(출처:시부야대학 웹사이트)

고 큰 대학, 바로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하는 시부야대학이다.

특이하게도 이 대학의 학장은 아주 젊디젊은 35살의 청년인데 더 특이한 것은 등록금도 시험도 학점도 졸업도 없다는 점이다. 아니, 졸업이 없는 것을 넘어 이 대학은 “언제까지나 졸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분명 시부야대학의 우등생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부야대학은 일반적인 정규 대학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온라인 중심의 원격 대학도 아니다. 시부야대학은 20만 시부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부야 도시 전체를 통째로 캠퍼스 삼으며, ‘마을을 캠퍼스로’라는 기치 아래 만들어진 지역밀착형 비영리평생학습기관이다.

시부야대학의 눈부신 성장

시부야대학의 학장인 사쿄 Yasuaki Sakyō 씨는 어린 시절 소아천식으로 고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럭비를 시작했고 와세다대학 재학 시절에는 럭비부 주장까지 맡은바 있는 젊은 청년이다. 평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던 그는 먼저 기업이 갖는 시스템과 장점을 이해하고자 무역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 후 <그린버드 GREEN BIRD>라는 비영리단체에서 1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 마침내 2006년 9월 시부야대학을 창립했다. 그러나 시부야대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사쿄 씨가 아니라 시부야 구의원인 하세켄 씨였다. 구청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공감은 하였지만 새로운

일에 쉽사리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이때 사쿄 씨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한번 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2006년 9월에 메이지 신궁 회관에서 개강을 하게 되었다.



시부야대학의 학장인 사쿄 Yasuaki Sakyo 씨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3년 안에 70% 이상이 문을 닫고 10년을 지속하는 조직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시부야대학은 어느 정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총 820번 이상의 수업이 진행됐고 강사로 활동한 사람만도 740여 명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실로 확보된 곳은 총 290곳 이상이며 등록된

학생 수는 1만 6천 명에 달한다.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의 몇 배에 달해 늘 추첨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시부야대학의 안착은 이런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수업 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강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수강생뿐 아니라 수업 진행을 돕고 있는 볼런티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데, 시부야대학 덕분에 매일 매일의 삶이 즐겁고 충실해 졌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이런 시부야대학의 모델을 자기 지역에서도 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교토, 나고야, 삿포로 등 일본 전역에 8개의 자매 학교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전역에 8개의 시부야대학 자매교가 분포되어 있다. (출처: 시부야대학 웹사이트)

시부야대학의 눈부신 성장이 놀랍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자립해 지속적인 활동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 시부야대학의 재정은 기업의 후원이나 위탁사업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었는데 대지진 발생 후 그 수입이 거의 끊어진 것이다. 수업 개수도 줄이고, 새로운

교실도 개척하면서 힘들게 상황을 극복해 왔다. 그 때를 계기로 보다 나은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은 적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시부야대학의 재정 상태 등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가르치는 수업

시부야대학의 선생님은 전문강사가 아니다. 시부야에 거주하거나 시부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지식과 재능,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그런 만큼 수업의 내용도 다양각색이다. 현재 시부야에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이샤가 2명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게이샤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을 잘 아는 꼬마가 문화 예술가가 만들어 준 모형버스를 타고 지역을 안내하는 강좌도 있고 쓰레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수업도 인기가 있었고 구청과 함께 방재훈련을 하는 현장체험 학습도 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대 여성과 직장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시부야 주민뿐 아니라 비거주자들의 참여도 매우 높다.



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게이샤수업, 쓰레기담당 공무원수업, 방재체험, 지역투어 수업(출처: 빌리지디자인스쿨 강연기록)

이 외에 시부야대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 교육은 함께 크는 것, '아이들이 듣는 아버지의 육아일기' : 우체국 근무 초보아빠

- 아이들이 가르치는 인간관계, '형제자매 싸움과 화해방법' : **초등학생**
- 유언실행을 위한 자리가 되다, '내 꿈은 멈출 수 없다' : **여중생**
- 매일 할 수 있는 로하스 라이프, '나의 극비 쓰레기분리 기술' : **주부**
- 모른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된다, '여고생이 본 일본 역사, 여기를 모르겠다' : **여고생**
-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멋진 체조, '머리와 몸의 관계, 큐브 3분 완성술' : **직장인**

이렇듯 시부야대학의 수업은 강사로 나선 주민이 있어 가능하다. 이들과 함께 시부야대학의 수업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강좌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강좌는 코디의 기획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이 제안한 기획안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끝나면 코디가 관련 강사를 섭외하고 수업내용에 가장 걸맞은 장소를 물색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볼런티어와 함께 수업 전체를 관장하게 된다. 시부야대학에는 이런 코디가 약 20명 정도 있는데 일 년에 여러 개의 강좌를 만들어내는 코디도 있고 한 개도 만들지 못하는 코디도 있다. 기획된 강좌 당 4만 엔(약 47만 원)의 수교료가 코디에게 지급된다.

코디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 수업에 학생으로 참여했다가 그 인연으로 볼런티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코디 역할에 관심을 가져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코디 역할을 할 사람을 따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처음 코디를 하는 사람에겐 기존의 경력자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코디는 시부야대학이 여타의 평생교육기관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란 가르치는 입장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즉, '시민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업이 기획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부야대학의 특징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입장을 대변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코디다. 코디 스스로 한 사람의 학생이 되어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 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기획하기 때문이다.

수업을 매개로 한 관계 맺기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본연의 역할로 삼고 있는 시부야대학. 그렇기 때문에 시부야대학의 미래상은 대학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여 그려진다. 시부야대학의 역할은 그들을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사교 씨는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시부야대학의 미래, 그리고 시부야 도시의 미래가 일본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 요즘 일본에서는 좀처럼 밝은 화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시부야라는 지역은 일본에서도 다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보통신력과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일본 사회의 차세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시부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시부야대학의 활동이 아직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시부야대학을 계기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음은 틀림없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과 지역 기업,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자들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처럼 시부야대학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만나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시부야대학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단지 다양한 강좌 만들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 강좌는 어쩌면 매개물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강좌를 통한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 이것이 시부야대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단순히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현재 30여 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합창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60~70대 노인들과 20~30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결국 시부야대학 자체가 커다란 커뮤니티인 셈이다. 철저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연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시부야대학.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업과 공공부문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지역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부야대학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 된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shibuya-univ.net>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우다가와초 5-2
이메일 info@shibuya-univ.net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제 28(2012.3.27.)호에 실린 <시부야대학> 인터뷰 기사 참조

청년들의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자립 프로젝트 00은대학

대학을 졸업하고도 태반이 백수인 시대, 직업이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시대에 회사 취직은 더 이상 유일한 대안도, 최선의 대안도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틀에 박힌 인식을 바꾸고 진정한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2030청년'들과 함께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00은대학(땡땡은대학이라고 읽음)은 그 대안을 마을에서 본다. 00은대학은 청년들이 마을의 자원과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배울거리, 놀거리,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자립을 돕는 학습 프로그램이자 동시에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다. 2009년 8월 '마포는대학'을 시작으로 구로, 온수리, 부천 등 10여 개 이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희망청>, <노리단>을 거쳐 현재 <00은대학연구소>에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연구, 보급하고 있다.

마포, 구로, 온수리…… 모든 마을이 대학이다

“일상의 가치”를
지역민과 함께 발견하고 나눕니다.
앞-뒤 세대가 함께 배움으로 연결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푸는 천 개의 일거리로 만듭니다.” - 00은대학의 미션

00은대학(땡땡은대학이라고 읽음)은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 88만원세대(임금 88만원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으로 표현되는 2030청년의 문제를 일상, 마을, 세대 연결이라는 열쇳말로 풀어보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다.

00은대학의 처음 시작은 '마포는대학'이었다. 마포구 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행복한 직업 찾기와 공동체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마포는대학은 <희망청(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기획과 <함께일하는재단>, <노리단(문화예술관련 사회적기업)>의 후원으로 2009년 8월에 시작되었다. 그 후 2010년에는 '구로는예술대학' 2011년에는 '온수리대학'과 '역곡북부시장은대학'이 문을 여는 등 00은대학 모델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2011년 말에는 00은대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00은대학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었고 이에 힘입어 2012년에는 약 10여 개의 00은대학이 진행되었다.

청년 자립과 마을 만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청년들의 배울거리, 놀거리, 일거리를 찾고, 그 과정에서 청년-주민-지역 간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만들어가는 00은대학. 청년 자립을 돕는 학습 프로그램이자, 동시에 청년들의 창의적 방식을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인 00은대학의 기본적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마을에 숨은 인적, 물적 자원, 즉 보물을 찾아내는 청년 '술래'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술래학과'라고도 불린다.

- **1단계 / 사례 학습**
이전에 진행됐던 00은대학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청년 참가자들이 마을을 새롭게 발견하는 눈을 키운다.
- **2단계 / 마을 탐방**
공간 탐방,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을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조사한다.
- **3단계 / 기획 워크숍(초기 기획)**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브레인 스토밍 등을 통해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 주민이 강사로 나선 마을배움터 :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우는 마을배움터 기획
- 문화예술 이벤트 : 마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벤트 기획

• 4단계 / 실전 기획

실제 기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학습하고, 세부 기획을 완성한다.

- 특강 : 실전 기획서, Q-sheet 작성법 등 강의
- 발탁담 섭외 : 기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단계
- 세부 기획 : '주민이 강사로 나선 마을배움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민 강사와 '문화예술 이벤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벤트 참가자들과 세부기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단계

• 5단계 / 홍보

홍보물, 입소문 등을 활용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 6단계 / 프로그램 진행

기획된 주민이 강사로 나선 마을배움터 및 문화예술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 들 또한 OO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 7단계 / 마을축제 및 네트워킹 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난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8단계 / 일거리 만들기

OO은대학 프로그램을 수강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일거리를 만든다.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창업 : 수산업(손으로 만드는 모든 물건으로 세상과 만나는 청년 창업), 울림(청소년 대상 진로 지도 관련 사회적 기업) 등
- 동아리 및 스터디 그룹 구성 : 철학책 읽기 모임 등
- 이벤트 진행 : 라면영화제(청년들이 영화를 통해 만나는 장. 라면1개가 입장료) 등
- 기타 : OO은대학연구소에 참여, 잡지 발간 등

위 프로그램 구성에서 알 수 있듯 OO은대학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형 학습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년들이 기획한 주민이 강사로 나선 마을배움터 및 문화예술 이벤트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기획한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우는 마을배움터' 사례(좌), 청년들이 기획한 '마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벤트' 사례(우)(출처:OO은대학연구소 웹사이트)

일자리도 관계망도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 '청년', 일자리와 관계망이 뽕뽕 숨어버려 황폐해진 이 시대 '마을', 이 문제적 두 존재의 만남이 이 정도로 찰떡궁합일 줄이야. 청년이 '슬래'가 되어 마을의 숨은 보물을 찾아내는 OO은대학은 '청년의 자립'과 '마을 만들기'라는 난해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잘 조화된 해법이라 할 수 있겠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ooniv.org>
 이메일 oo@ooniv.org

-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OO은대학연구소 웹사이트
- OO은대학 2012년 심포지엄 자료집(<http://www.ooniv.org/584>)
- '마포는대학' 이전 블로그(<http://mapouniv.net/>)
- <희망청> 블로그 중 '마포는대학' 관련 섹션(<http://hopenetwork.tistory.com/category/마포는대학>) 등

일상의 마을살이가 공부가 되는 곳

마을법인 회원 150여 명을 포함하여 매달 약 6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삼각산재미마을의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마을배움터

마을주민을 강사로 발굴하고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순환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마을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신나는 마을배움터 '우리마을에서배운다'** : 마을 속 생활문화강좌 운영을 통한 주민평생교육의 장 마련, 마을주민강사 발굴 및 운영을 통한 마을 내 일자리 창출, 마을장터 및 마을축제를 통한 일상의 배움을 모아내고 나누는 순환과정 형성
- **청소년 마을배움터 '꿈틀꿈틀'** : 청소년 인문특강 및 청소년 문화기획 아카데미
- **사람, 문화, 이야기가 있는 '강북재미마을장터'** : 청소년 장터 워크숍, 마을주민(개인, 동아리, 자발적모임 등) 장터 워크숍, 월 1회 장터 운영과 축제 진행



마을배움터 활동 모습(출처:삼각산재미마을 웹사이트)

재미난카페

2009년 <삼각산재미난학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출자와 투자로 만들어졌던 친환경농산물식당 <재미난밥상>을 2011년 마을법인이 인수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다.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마을법인 회원총회를 거쳐 문화카페로 방향을 잡고 회원들이 필요 자금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직접 진행해 2011년 9월 <재미난카페>가 문을 열었다.

- **책이 있는 카페** : 마을과 함께하는 한 뼘 책꽂이 분양, 책나눔 활동 지원
- **마을 동아리 활동 지원과 공간대여** : 움직이는 그림책 '요술항아리', 책 읽는 엄마모임 '마술책 (마을에서 술술 책 읽기)', 사진동아리 'photo521' 등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대관 지원
- **재미난카페데이** : 아빠의 부엌, 와인강좌, 작은 음악회 등 마을주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돌봄서비스와 간식제공, 방학특강, 사람책 도서관 등



재미난카페 활동 모습(출처:삼각산재미마을 웹사이트)

마을목수공작단

버려진 것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 **마을목공교실 상설 운영** : 기초반, 자유창작반, 공구별 워크샵 등 진행, 취약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마을목공교실 운영, 방과 후 목공수업 운영
- **제작 및 판매** : 마을장터 등을 활용한 가구리품과 맞춤형가구 주문 제작, 목공소품(장난감, 인테리어소품 등)과 DIY 반조립자재 판매 사업



마을목수공작단 활동 모습(출처:삼각산재미마을 웹사이트)

위에 소개된 3가지 활동은 마을법인이 부설로 운영하는 <삼각산재미난마을사업단(서울(예비)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3년 10월에 설립된 초등대안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20주년을 맞은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2000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전문극단 <극단진동>,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마을 아줌마 아저씨로 구성된 마을밴드 <InB>, 음악 감독 일을 하는 마을 주민의 개인 스튜디오 개방과 재능 기부 덕분에 상설 연습 장소인 <웨이브컬렉션>을 갖게 된 10대에서 50대 주민 10여명이 모여 만든 <백세밴드>, 마을 유기농 카페 <521st> 등 마을을 살 맛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과 공간이 마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삼각산재미난마을 주민들은 살고 싶은 삶, 일상에 대한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웃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그 꿈을 마을에서 조금씩 실현해간다. 마음속 믿음이

나 앞을 생활 속 일상의 실천으로 전환해 가는 지행합일의 삶을 산다고도 할 수 있겠다.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자신의 일상과 연결된 구체적 행위를 통해 배워가는 이들의 공부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부라 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연락처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maeulro53>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 홈페이지)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40-31(인수봉로 79길 38)
전화 070 7525 3868(마을법인 사무국)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 웹사이트
- 삼각산재미난마을 관련 기사(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menuID=001001005&boardID=179917&category1=NC1&category2=NC1_5, <http://blog.naver.com/artezine/90145188818>) 등

대중지성의 시대, 대학의 경계를 허문다

1 DIY 대학 운동

2 엠오오시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3 대안인문학공동체 운동

4 포티스리싱즈43 Things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대학 DIY 대학 운동

대학 교육의 상품화, 엘리트화, 보수화 등에 반기를 들고 나만의 대학, 소위 'DIY 대학'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이 제공하는 고정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스스로 설계한 자기만의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자들. 이들이 바로 DIY 대학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주도 학습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를 제공하는 <에듀펑크스 가이드>, 다이나믹한 도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언칼리지> 등 대학 교육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대학 밖 대학을 꿈꾸는 사람들

- 순수한 배움에 대한 열정과 희열로 가득 찬 지성의 장이 아닌 스펙 쌓기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대학의 위상
- 도전적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자기 창조적 배움이 아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액자화된 지식의 축적만을 요구 받는 학생들
-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 만들기를 중시하는 대학 당국 및 교수들
- 지식 사회의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상아탑이라는 온실 속에서

점점 정체되고 보수화되어 가는 대학 분위기

- 학벌 및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특권적 엘리트 계층의 지속적 배출 및 계층 간 격차 심화에 일조하는 대학 시스템
- 개인의 다양한 욕구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 프로그램만이 제공되어 개인의 선택의 폭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고등교육의 현실
-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에 도전장을 내고 나만의 대학, 소위 'DIY 대학'을 만들어 대학이 제공하는 고정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스스로 설계한 자기만의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DIY 대학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자들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단체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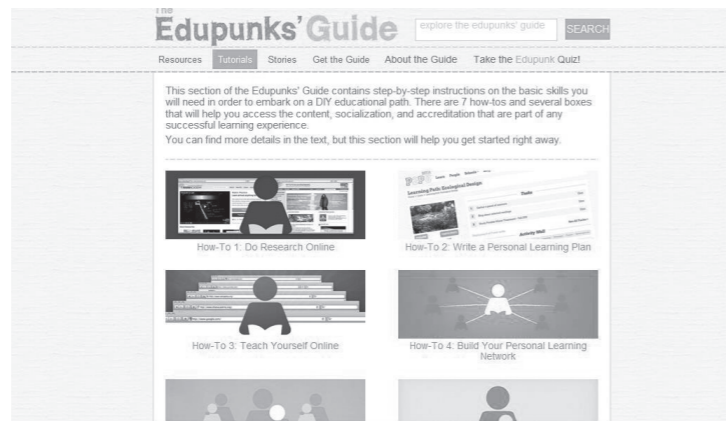
에듀펑크스 가이드Edupunk's Guide

“에듀펑크 학습자는 기존 대학의 룰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기존 대학의 틀 안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관심사의 소유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부양 및 직장 생활 등으로 풀타임 학생으로 살아가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의 학습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그냥 싫어서 일 수도 있다.”

에듀펑크스 가이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종합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는 교육 관련 글을 주로 쓰는 미국 작가인 애나 카메네츠 Anya Kamenetz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2011년에 전자책 형태로 출판되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http://edupunksguide.org>)로도 구축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깔끔하면서도 참조하기 쉽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습 관련 단체, 네트워크, 아이디어 등 다양한 학습 관련 정보 섹션
 - 자기주도 학습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목록 : 인성 및 적성 검사, 경력 개발 및 관리, 대학 학위 및 전문 자격증 검색 등과 관련한 정보 목록
 - 정규 대학 과정, 대학 학점 인정 과정, 맞춤형 대학 과정 등 학위 취득 관련 정보 목록
 -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및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학습 관련 정보 목록 : 학습 자료(예: 텍스트, 동영상, 강의 등),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예: 학습 동아리, 경험 공유 플랫폼, SNS 등), 참여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단체, 혁신적 교육 벤처 등과 관련한 정보 목록
 - 평판 관리 및 네트워킹 관련 정보 목록
-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 노하우 7가지를 알려주는 섹션
 -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법
 - 학습 계획을 작성하는 법
 - 온라인 상에서 학습하는 법
 - 학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법
 - 멘토를 구하는 법
 - 학위, 자격증, 수료증 등 증명서를 획득하는 법
 - 평판이나 명성을 관리하는 법
- 에듀펍크 학습자들의 생생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섹션
- 본 가이드를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간단 퀴즈 섹션



에듀펍크스 가이드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7가지 기본 노하우'를 소개하는 웹페이지

언칼리지UnCollege

“언칼리지는 대학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바꾼다.
언칼리지는 급속한 환경 변화(기존의 대학은 절대 적용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010년 데일 스티븐스(Dale J. Stephens)에 의해 시작된 언칼리지는 대학 밖에서의 진정한 학습을 꿈꾸는 비영리단체다. 대부분의 교육을 집에서 받은 홈스쿨러인 스티븐스는 잠깐 동안 대학에 다닌 적이 있다. 이 때 대학에서 가르치는 소위 ‘학문적 지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된 배움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칼리지를 시작했다.

언칼리지는 대학 밖 또는 대학 내의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정보와 노하우를 소개한다. 그 방대한 학습 정보 목록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또한 ‘언칼리지 갭 이어(The UnCollege Gap Year)’라는 1년짜리 유료 프로그램도 제공하는데 그 구성 내용이 상당히 다이나믹하다. 10명의 참가자가 첫 3개월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지내며 기초 학습 수행 및 나만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3개월은 해외에서 살아보고, 세 번째 3개월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네 번째 3개월은 인턴십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 학습 활동으로는 인문학 공부,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학, 프로그래밍, 디자인, 커뮤니티 케이션 공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 신문에 기사 기고하기, 개인 웹사이트 만들기, 서비스 및 육체 노동 해보기, 내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등 그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다. 1만 3천 달러(1천 5백만 원)라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수궁이 가진 한다.



언칼리지의 로고(좌)와 갭 이어 프로그램 로고(우)
(출처: 언칼리지 웹사이트)



멘토마브MentorMob와 제트티시ZTC, Zero Tuition College

그 밖에 서로의 '학습 리스트learning playlists'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학습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을 도와 주는 사이트들도 있다.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자 할 때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유용한 학습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마브MentorMob> <http://www.mentormob.com>, 나만의 대학 공부가 가능하도록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소개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제트티시ZTC, Zero Tuition College> <http://www.ztcollege.com>도 눈여겨 볼만하다.

연락처

홈페이지 에듀펍크스 가이드 - <http://edupunksguide.org>
 언칼리지 - <http://www.uncollege.org>
 멘토마브 - <http://www.mentormob.com>
 제트티시 - <http://www.ztcollege.com>

-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소개된 각 단체의 웹사이트
 - <위키피디아>의 각 단체에 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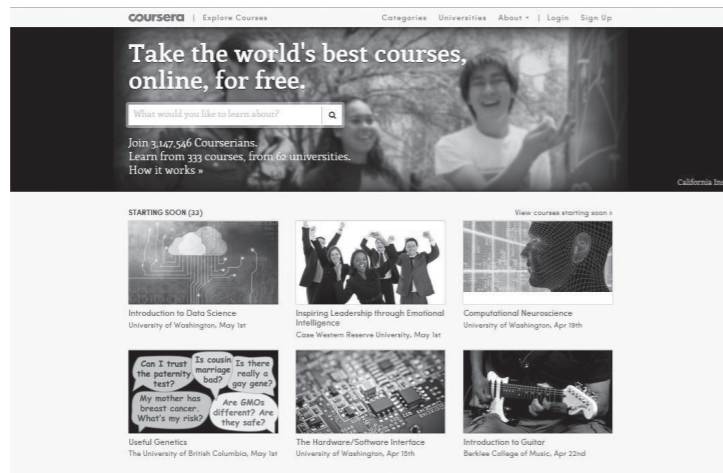
온라인 기반 대안 대학 엠오오시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엠오오시(이하 MOOC)는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는 참여형 열린 강의를 의미한다. 최근 1년여 사이 스탠포드, 하버드, MIT와 같은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대거 MOOC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 일류 대학의 비싼 명강의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수강할 수 있게 한 MOOC.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MOOC는 대학 교육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 MOOC로는 스탠포드대에서 만든 <코세라>, 하버드대와 MIT에서 만든 <에드엑스>, 대학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유대시티> 등이 있다.

대학 교육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MOOC

엠오오시(이하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대규모 열린 온라인 강좌)'의 머릿글자를 딴 말이다. 글자 그대로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는 참여형 열린 강의를 의미한다. MOOC라는 용어는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러다가 최근 1년여 사이 스탠포드, 하버드, MIT와 같은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대거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MOOC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는 '2012년은 MOOC의 해였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을 정도다.

세계 일류 대학의 그 비싼 명강의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혁신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돈이 많은 적든, 몇 살이든, 어디에 살든, 몇 시든 상관없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세계 최고 지성을 만나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MOOC는 기회의 평등을 통한 대학 교육의 대중화 및 학벌주의의 해체, 학습에 있어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이라는 민주적 가치 구현, 대학 교육의 평생 학습화 가속화 등 대학 교육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MOOC라 할 수 있는 <코세라>의 홈페이지.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MOOC는 단순히 강사의 일방적 강의를 듣기만 하면 되는 기존의 온라인 강의와는 다르다. 강의 수강을 하면서 다른 수강자들과 온라인 학습 그룹을 형성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오프라인 학습 모임을 제안해 볼 수도 있다. 강의 중간중간에는 퀴즈도 풀어야 하고 과제도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시험도 보고 평가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숙제 검사나 시험 채점을 강사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요즘에는 객관식 문제뿐 아니라 보다 복잡한 문제도 자동 채점이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때는 수강생들이 협동심을 발

휘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숙제를 검사해 주거나 시험을 채점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소위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이다. 강의 듣기를 무사히 끝내면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이수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강의 영상은 온라인 교육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된다.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촬영된 수업 영상이 그냥 그대로 뽀뽀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위해 따로 제작된 강의 영상이 강의 교안이나 노트 등의 보조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강의의 길이도 15분 정도로 짧게 제작되는데 이는 수강생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강의마다 일정이 정해져 있어 그에 맞춰 수강해야 한다. 수강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생겨 마냥 늘어지기 쉬운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고 스케줄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더 원활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MOOC계 대표주자 3인방

대표적 MOOC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 코세라 Coursera <https://www.coursera.org>**
 2011년 가을 두 명의 스탠포드대 교수에 의해 시작된 코세라는 대표 중의 대표 MOOC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3월 현재, 브라운, 콜롬비아, 프린스턴, 존스홉킨스, 일리노이, 스탠포드 등 16개국의 62개 대학이 참여하여 30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수강생 수는 약 3백만 명에 이른다.
- 에드엑스 edX <https://www.edx.org>**
 2012년 초반 하버드대와 MIT에서 약 3천만 달러(약 330억 원)를 출자해 만들었다. 첫 강좌에 160개국에서 15만 명이 등록했다. 2013년 3월 현재 15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 유대시티 Udacity <https://www.udacity.com>**
 2012년 초반에 설립된 유대시티는 컴퓨터 관련 대학 강좌를 제공한다. 대학이 아닌 개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2013년 2월 현재 2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사례

대학이 아닌 개인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는 점, 수강생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스케줄에 따라 수강 일정을 정한다는 점 등에서 위에 소개한 MOOC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강좌 플랫폼으로서 꽤 유명한 두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한다.

- **유데미Udemy** <https://www.udemy.com>

대학 수준의 강의를 주로 제공한다. 위에 소개한 3개의 사례들이 전통적 대학 강의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유데미는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강의를 제공한다. 무료인 강좌가 대부분이지만 유료도 있다.

-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http://www.khanacademy.org>

온라인 교육 혁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이트다. 대학 강의에 국한되기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2천4백여 개의 동영상과 함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 등도 제공한다. 특히 수학 관련 강좌가 많다.

연락처

홈페이지 코세라 - <https://www.coursera.org>
에드엑스 - <https://www.edx.org>
유대시티 - <https://www.udacity.com>
유데미 - <https://www.udemy.com>
칸 아카데미 - <http://www.khanacademy.org>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본문에 소개된 단체의 웹사이트
- <위키피디아>의 MOOC관련 페이지(<http://en.wikipedia.org/wiki/Mooc>) 및 본문에 소개된 각 단체별 정보 페이지
- 개인 블로그인 <조성문의 실리콘밸리 이야기>의 MOOC관련 글(<http://sungmooncho.com/2012/12/07/coursera/>)
- <한국대학신문>의 MOOC관련 기사(<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269>)
- 김주호 씨가 TEDy Boston에서 강연한 비디오(<http://juhokim.com/talkscape/v/juhokim-mooc>) 등



대표적 MOOC 플랫폼의 로고 모음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질문하기 대안인문학공동체 운동

대학의 권력화 및 상품화로 인해 삶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자유롭고 비판적인 연구가 불가능해진 오늘의 대학 현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공부 방식과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소규모 인문학공동체들이 대학 밖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펙 쌓기에 지친 대학생들 뿐 아니라 돈 때문에 마치 못해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반복된 일상에 무료해진 주부들, 조기 퇴직 후 불안한 노후를 살고 있는 시니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설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세상 살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이러한 대안인문학공동체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중 <수유너머R>,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다중지성의 정원>, <문탁네트워크>를 소개한다.

지성의 수단화 및 예속화에 대한 저항 운동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질문, 토론을 할 수 있는 지성의 장이기 보다는 취업을 위한 학위 취득 및 스펙 쌓기의 장이자 자본권력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의 장으로 바뀐 오늘의 대학. 이러한 지성의 수단화 및 예속화에 대한 저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대학 밖 소규모 연구공동체들이 최근 약 10년 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쓸모 있는 공부와 거리를 두고 자유롭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

로운 공부 방식과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실천해가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인문학공동체 중 개인적 소모임 형태라기 보다는 개방적 형태를 취하며 외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아래 각 단체에 대한 소개 내용은 단체 별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과 <경향 아티클 article> 2012년 5월호의 특집 기사 '인문연구공동체'에 소개된 내용을 옮겨 온 것이다.

코뮤넷 수유너머

<수유연구실>과 <연구공간 너머>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연구공간 수유+너머>가 10여 년간의 활동을 접고 2009년에 <수유너머R>,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수유너머 문>으로 분화되면서 <코뮤넷 수유너머>라는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코뮤넷'은 코뮌(commune)들의 네트워크라는 뜻이다. 코뮤넷 수유너머 중 <수유너머R>과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에 대해 소개한다.

수유너머 R

수유너머R은 연구자공동체다. '연구자'와 '공동체'라는 말은 대충 주로 말과 글을 갈고 닦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밥을 해먹고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정도로 이해하면 무방하다. <수유+너머>에서 분화된 후 문화예술카페 <별꼴>과 동거하게 됐다. 별꼴은 장애인활동이 주축이 되는, 그 이름처럼 별난 카페다.

- **세미나 및 강좌 예시**
주역 세미나, 푸코의 통치론 세미나, 몸 세미나, 문학 세미나, 내면 세미나, 사기세가 기획세미나, 현장 인문학 기획 세미나, 영화 세미나, 시 읽기 말들의 풍경 세미나, 청소년 강좌 토요서당, 청소년 고전학교, 글쓰기 최전선 강좌 등
- **세미나 및 강좌 진행 형식 및 회비**
세미나의 경우 참여자들이 서로 발제를 나눠하며 진행되는 형식으로 월 1만5천 원을 내면 세미

나 개수에 상관없이 여러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획 세미나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두고 다양한 진행방법에 따라 공부를 함께 하는 형식이다. 강좌는 연구실 회원들이 공부한 내용을 외부와 나누는 통로다. 연구실 회원들의 공부 방향에 따라 기획된다. 기획 세미나와 강좌는 각 프로그램 별로 회비가 따로 정해진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진행되는 강좌의 경우 세 달 회비가 약 25만 원 정도다. 회비는 연구실 운영과 강사료로 쓰이며 환불되지 않는다.

노마디스트 수유너머 N

수유너머N은 코뮌주의적 활동을 함께 실천하고자 모인 집단이다. 국가와 자본, 권력에 속박되어 불모의 대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 위에 다양한 차이들을 가로질러 새로운 길을 만드는 노마딕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자 한다. 매일의 일상과 동아리 모임, 세미나와 강좌 등에 이르는 활동들이 N개의 삶, N개의 사유, N개의 코뮌, N개의 네트워크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수유너머N의 기본적인 활동 방식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것이지만 또한 매일 밥을 지어먹고 공간을 청소하고 수다를 떨며 일상을 공유하고, 집회 현장이나 연대단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반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들은 코뮌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국제워크숍

제 7차 국제워크숍, 프랑코 베라르디(비포)와 함께 하는 「불안정 노동과 포스트 미래주의」을 개최한다. 국제적인 지적 교류나 연대란 일회적인 강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한 학기간의 밀도 있는 준비를 거쳐 참가자들의 자율재정으로 초청되는 실천적인 저술가와 일주일 간의 강도 높은 세미나로 진행된다.

• 인문사회과학연구원

보다 깊이 있고 강도 높은 연구와 학습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2012년에 시작한 대학원 수준의 연구 프로그램이다.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소위 고급지식을 성실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길 원하는 모든 이와 나누자는 지식의 민주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한 학기에 두 과목이 개설되고 총 8개 과목을 이수하면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진다. 논문은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 달팽이 공방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DIY’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삶과 직결된 것들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삶의 일부분을 구성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쓰기에 손도 수고스럽고 시간과 비용도 꽤 든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만이라도 달팽이 걸음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친구들을 만나고자 한다.

다중지성의 정원

다중지성의 정원(이하 다지원)은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인 다중이 표현하는 정보적 정동적 행동적 소통적 지성들을 강좌와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는 소규모 인문공동체이다. 세미나 및 강좌 제공, 출판사 <갈무리> 운영, 웹진 <자율평론> 발행 등의 활동을 한다. 다중 **multitude**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며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주체(성)들의 이름이다. 다중은 국가질서와 자본질서에 대항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잠재적이면서도 끊임없이 현실화되는 특이한 힘이다. 특히 인간의 물리적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 감각, 지각, 마음 등도 포섭하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다중이 표현하는 정보적 정동적 행동적 소통적 능력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그것을 넘어서려는 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다지원은 사무국과 ‘쿠쿠’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쿠쿠KuKu는 에스페란토어로 강의관리자를 뜻하는 kursa kuratoro의 약어이다. 에스페란토어는 19세기에 발명된 언어로, 국가와 민족이 없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기 위한 언어이다. 다지원은 지성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에는 특정 국가와 민족에 한정될 수 없다는 뜻을 같이하며 이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쿠쿠는 강의 진행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다지원의 기획, 운영, 청소 등을 함께 하는 자원 활동가들로서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갖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강좌

대중 속에서 멘봉한 대중을 위한 대중인문학, 이탈리아 정치영화의 시학, <이방인> 불어로 함께 읽기, 기초 불어 문법, 라캉을 철학적으로 읽기, 기술과학과 섹슈얼리티의 재구성, 그것을 시로 쓰기, 욕망의 소설 창작, 우쿨렐레로 여는 노래만큼 좋은 세상 등. 8강으로 구성된 강좌 회비는

12만 원 정도다. 여러 강좌 수강 시 할인 혜택도 있고, 다지원정액회원비 45만 원을 내면 해당 학기의 모든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 **세미나** : 월회비 2만 원을 내면 모든 세미나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 **기획 세미나** :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조정환의 생명과 혁명 세미나, 자율주의 영어토론 세미나 등
 - **일반 세미나** : 미학 시학 세미나, 정신분석학 세미나, 감독 불어 세미나, 성 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영어 시사토론 세미나 등

문탁네트워크

문탁네트워크(이하 문탁)는 위에 소개한 전형적 인문연구공동체는 달리 마을 속으로 들어간 인문학 공간이다. 강좌 및 세미나 외에도 공부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험과 능력, 기술이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실험적 활동과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을 키우는 활동들을 모색한다. 또한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밥을 해 먹으며 누구나 주인의 마음으로 일상을 견결히 꾸려나가고자 한다.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인 문탁네트워크는 공부가 삶이 되고 일상이 공부가 되기를 꿈꾸는 곳이다. 문탁은 선물과 환대의 공동체이다. 돈으로 주고 받는 교환의 원리가 아닌 마음 담긴 선물이 순환되는 곳,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곳, 접속의 가능성으로 흘러 넘치는 기쁨 가득한 터전이다. 누구나 시인이 되고 농부가 되는 곳,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민주주의와 삶이 살아있는 곳이 문탁이 만들고 싶은 마을이다. 문탁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걸어가고, 책뿐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배우며,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한다. 문탁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강좌 및 세미나**

강좌와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기를 바란다. 삶과 세상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모든 영역을 가로질러 구성되며 나이,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세미나** : 동서양의 주요사상가를 읽는 마녀세미나, 마을과 경제 세미나, 직장인을 위한 공공공(공공재를 생산하는 공부 공작소) 세미나, 정치사상세미나, 일본어 및 영어 감독 세미나, 동양철학 고전 한문을 공부하는 세미나, 문학세미나, 동의보감 감독 세미나, 마을과 건강 세미나,

집이나 살림에 대해 공부하는 알집know-house 세미나 등. 한 달에 2만 원의 회비를 내면 모든 세미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강좌** : 네그리, 우리미술사, 주역, 고전탐사 등. 회비는 6강에 9만 원 정도다.

마을작업장 월든

덜 소비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변신하고, 다르게 사는 삶의 능력을 키우고, 호혜적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중이다.

- **목공소월든** : 자연과환경, 가구 되살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구 주문 생산 및 목공 교실을 운영한다.
- **자누리 생활건강** : 천연재료를 원료로 건강한 생활용품(비누, 세제, 화장품)을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능력과 지식을 친구들과 나누는 활동을 한다.
- **노라 찬방** : 동네사람들이 잔치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는 것처럼 솜씨와 맛을 나눈다. 월회비를 내는 회원제로 운영한다.
- **봄날길쌈방** : 재봉틀이나 손바느질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입던 옷과 안쓰는 천 등을 되살리기, 재봉교실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 **복활동** : '복'은 문탁에서 사용하는 마을화폐로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 거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점차 사용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한다.

청소년 및 교육 관련

- **악어떼 서당** : 고등학생 자립 프로젝트
- **해봄** : 20대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자립 프로젝트
- **청소년인문학** : 사유를 진전시키고 자유의 능력을 확대하는 다양한 읽고 쓰기 공부
- **청소년 이문서당** : 고전과 한자를 공부하는 서당
- **마을교사 원탁 아카데미** : <주권없는학교(가칭)>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 모임으로 2013년 3개의 시즌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개의 시즌은 약 3개월 간 지속된다.
- **세상의 모든학교 워크숍** : 동서고급의 다양한 배움의 양식을 사례발표나 특강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장으로 월 1회 개최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문연구공동체에서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강좌 및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 **남산강학원** <http://www.kungfus.net>
- **감이당** <http://gamidang.com>

- **대안인문학공동체** <http://www.paideia21.org>
- **철학아카데미** <http://www.acaphilo.or.kr>

연락처

<수유너머 R>
 홈페이지 <http://commune-r.net>
 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4가 322번지 삼정빌딩 3층
 전화 070 8268 7355
 이메일 zziraci@gmail.com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홈페이지 <http://nomadist.org>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18-23 이스턴빌 201호
 전화 070 8263 0910
 트위터 @nomadist_org

<다중지성의 정원>
 홈페이지 <http://www.daziwon.net>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 101호
 전화 02 325 2102
 이메일 daziwon@daziwon.net

<문탁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moontaknet.com>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75-2 2층
 전화 031 261 5033
 이메일 moontak@moontaknet.com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각 단체의 웹사이트
 • <경향 아티클 article> 2012년 5월호 특집 기사 '인문연구공동체' 참조

일상을 공부로 만드는 메카니즘 포티스리싱즈43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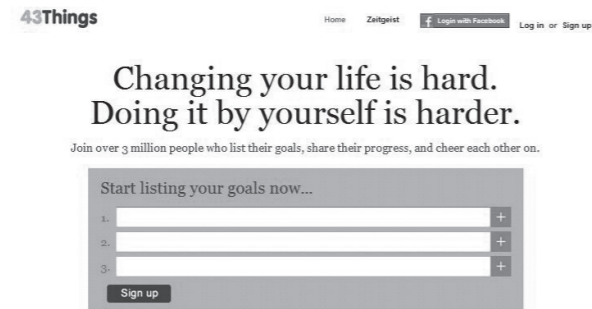
포티스리싱즈(이하 43싱즈)는 온라인 목표설정 커뮤니티다. 2005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유사 사이트 중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다. 43싱즈는 우리의 목표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목표를 공표함으로써 나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3싱즈를 단순히 목표를 수립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학습 사이트로 볼 수도 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바로 학습이라 할 때, 지속적인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43싱즈는 우리의 배움을 위한 꽤 훌륭한 도우미라 할만하다. 추가로 43싱즈와 유사한 마이피프티도 함께 소개한다.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인생 역전

“인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혼자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여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는 3백

만 여명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지금 작성해 보세요.”



43싱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문구

43싱즈는 온라인 목표설정 커뮤니티이다. 사용자는 43개까지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바쁜 사람들에게 43개 이상의 목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작성된 각 목표마다 그와 관련된 진척 상황이나 진행 과정 중에 든 생각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외에도 블로그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목표에 코멘트 달기 또는 응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대방의 목표 달성을 지지해주는 등의 기능이 있다. 또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뿐 아니라 이미 달성한 목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달성된 목표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신만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결심을 한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이다. 43싱즈는 이러한 우리의 약한 의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이다. 목표를 공표함으로써 나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좀 과장해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인생 역전이랄까?

내가 원하는 43가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43싱즈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표 1위부터 20위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목표를 희망한 사람의 수이다.

- 1위: 살 빼기(41,644명)
- 2위: 책 쓰기(31,003명)
- 3위: 미루지 않기(30,330명)
- 4위: 연애하기(27,203명)
- 5위: 행복하기(24,808명)
- 6위: 문신하기(21,982명)
- 7위: 목적지 없이 여행 떠나기(21,494명)
- 8위: 결혼하기(21,300명)
- 9위: 해외여행하기(21,016명)
- 10위: 물 많이 마시기(20,263명)
- 11위: 북극 오로라 관찰하기(19,103명)
- 12위: 스페인어 배우기(18,108명)
- 13위: 저축하기(16,361명)
- 14위: 사진 많이 찍기(15,410명)
- 15위: 기차 안에서 키스하기(15,162명)
- 16위: 내 집 장만하기(14,040명)
- 17위: 기타 연주 배우기(13,800명)
- 18위: 새로운 친구 사귀기(13,789명)
- 19위: 마라톤에 도전하기(12,757명)
- 20위: 프랑스어 배우기(12,7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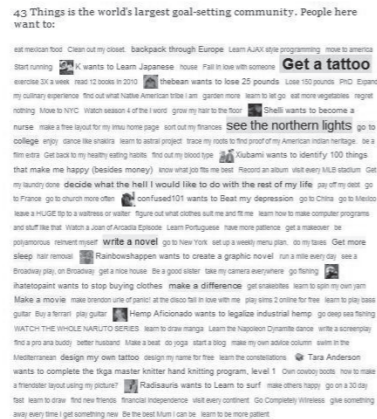
정말 소소한 것에서부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까지 희망하는 내용도 참 다양하다. 또한 43싱즈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신하기, 물 많이 마시기, 북극 오로라 관찰하기 등 다소 생경한 목표들도 눈에 띈다.

이번엔 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목표만을 모아서 알아보자. 43싱즈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유사한 사이트인 <마이 피프티my50>에 정리된 내용을 소개한다. <http://www.my50.com/categories.php?category=education>

- 이력서 작성 및 업데이트하기
- 경력 목표 정하기
- 내가 좋아하는 일 찾기
-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시작하기
- 무사히 졸업하기
- 대학 학위 따기
- 다른 사람의 학습 도와주기
- 외국어 배우기
- 구구단 12단까지 외우기
- 악기 연주 배우기
- 수영 배우기
- 배우고 싶은 것의 목록 작성하기
- 사표쓰기
-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 춤 배우기
- 정원 가꾸기 배우기

- 새로운 것 배우기
- 매해 새로운 기술이나 주제 한가지씩 배우기
-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 인테리어디자인 배우기
- 노래 배우기
-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하기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에 대한 열망,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된 내용보다 개인별로 작성된 목표 목록을 기웃거리는 것이 더 재미있긴 하다. 아무래도 각자의 개성이 담긴 문구들로 표현된 목표 목록이라 그런지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온다. 생생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43thing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싱즈 홈페이지의 태그 클라우드. 각 목표를 클릭하면 유사한 목표를 진행 중인 사람들, 관련 코멘트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하우 및 비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3싱즈나 마이 피프티 같은 사이트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기획으로 고민하는 평생학습 담당자에게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바로 학습이다

43싱즈를 단순히 목표를 수립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학습 사이트로 볼 수도 있다. 보통, 교육이나 학습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 지식을 습득하거나 학원 등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배움이란, 이러한 지

식이나 기술의 축적이라기 보다 내 삶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반복되는 일상에 내 몸을 맡긴 채 오늘이 어제인 양 내일이 오늘인 양 그저 습관적으로 살기 보다는, 나와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고 내 일상에 필요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이 며칠 만에 끝나 버리지 않도록 매일 매일 정성 들여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공부가 아닐까. 43싱즈는 목표 설정과 실천을 통해 내 몸에 깊숙이 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내가 꿈꾸는 일상을 실현하는데 힘이 되어 줄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작은 습관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이 합쳐져 나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 꼼꼼하게 내 일상을 한 번 계획해 보는 건 어떨는지.

“인생은 짧다. 충실하게 사는 삶을 바로 시작해라.
 (Life is short, so start living yours to the full.)”
 - 출처: 마이 피프티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43things.com>
 이메일 <http://www.43things.com/contactus>에서 이메일 문의 가능

※ 내용 작성을 위한 참조 및 인용 자료 출처

- 43싱즈 웹사이트(<http://www.43things.com>)
- <마이 피프티> 웹사이트(<http://www.my50.com>)
- Michael C. Habib씨의 개인 웹사이트(<http://mchabib.com/43things/index.html>)
- 43싱즈 설립자의 웹사이트(<http://blog.robotcoop.com>)
- 43싱즈와 유사한 웹사이트들(www.lifetango.com, www.stickk.com, http://valley.egloos.com/gd_valley.php) 등

